

칼라판/소년소녀 위인전기 32

나이팅게일

글 이 영 재
그림 신 동 우





삼국 통일의 명장

1 김 유 신



인류의 스승

2 그리스도



신라의 고승

3 원효대사



항해 탐험가

4 콜롬부스



고매한 문장가

9 최 치 원



근대 교육의 창시자

10 페스탈로찌



고려의 시조

11 왕 건



천재 음악가

12 모짜르트



한국의 발명왕

17 장 영 실



가곡의 왕

18 슈베르트



조선 중기의 학자

19 이 환



동화의 아버지

20 안데르센



동의보감을 쓴

25 허 준



아프리카의 탐험가

26 리빙스턴



북학파의 영수

27 박 지 원



동민을 그린 화가

28 밀 레



서역을 토벌한
5 고 선 지



자연 과학의 아버지
6 갈릴레이



해상 무역의 왕
7 장 보 고



근대 과학의 건설자
8 뉴 우 턴



북화비를 들어 온
13 문 익 점



유럽을 정복한
14 나폴레옹



위대한 임금
15 세종대왕



악성
16 베에토벤



여성의 귀감
21 신사임당



노예 해방의 대통령
22 링 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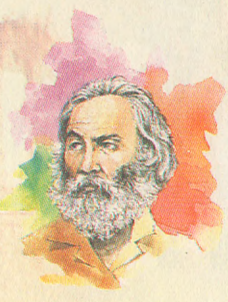
왜적을 무찌른 성웅
23 이 순 신



진화론의 창시자
24 다 아 원



현재 화가
29 김 홍 도



민주주의의 시인
30 휘 트 먼



실학의 거두
31 정 약 용



백의의 천사
32 나이팅게일

칼라판/소년소녀 위인전기32

나이팅게일

10002667 글 원 영 재
그림 신 동 우



금성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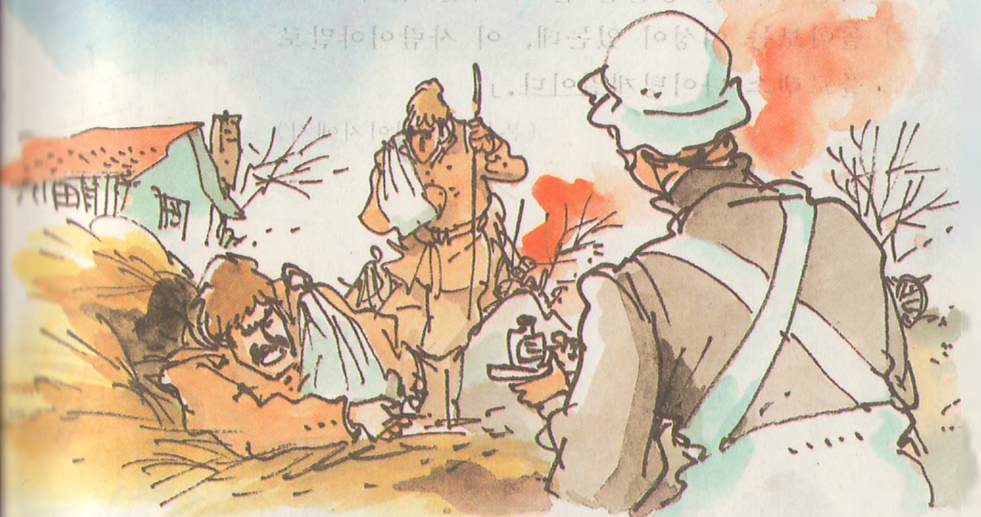
머 리 말

여자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은 보통입니다만, 나이팅게일이 살던 시대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데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바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여자라도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사명을 간호원의 일에서 발견하고 일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 바쳤던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한 덕분에 영국의 병원은 크게 변했고, 간호원의 위치도 아주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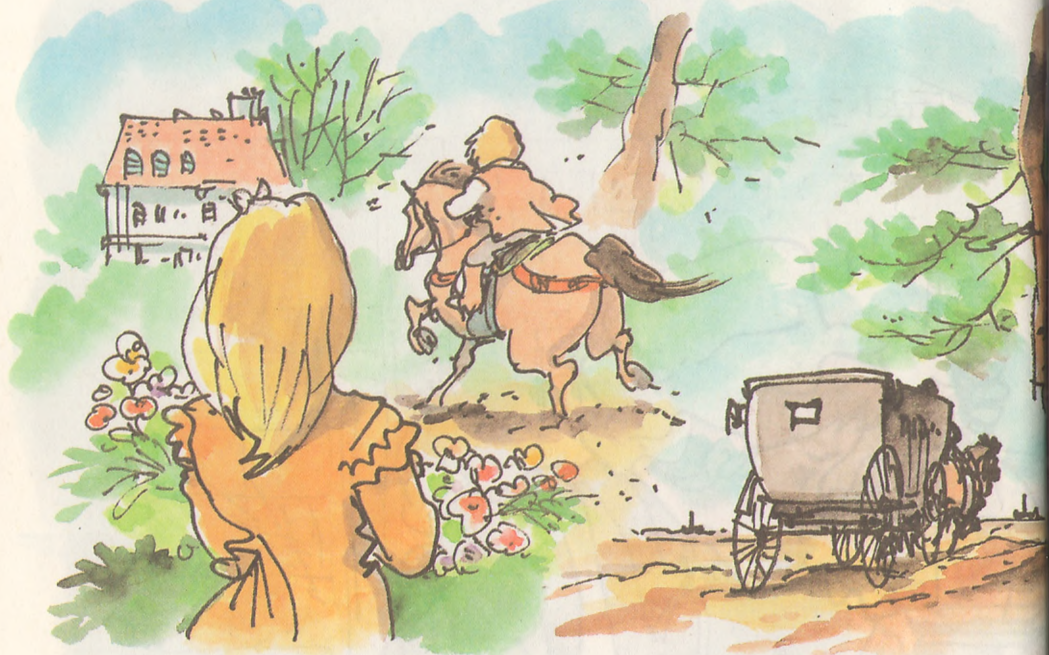
그런데, 나이팅게일은 여자이면서 어찌서 남보다 앞장 서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나이팅게일이 받은 교육을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당시의 여성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여, 나이팅게일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의 직원들이 모두 잠들고, 사방이 어둡고
고요에 싸여 있을 때, 지칠 대로 지쳐 누워 있
는 환자들 사이를 등불을 들고 다만 혼자서 조
용히 돌아보는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다..」

(본문 112페이지에서)







차 례

머리말.....	2
플로렌스의 탄생.....	8
나이팅게일이 한 일.....	13
엠브리에 있는 저택.....	16
선생님은 아버지.....	24
캡이라는 개.....	32
유럽 여행.....	40
폭풍우.....	51



시드니 씨를 만나다.....60

《타임즈》의 기사.....71

스쿠타리에 가다.....85

등불을 든 여자.....100

크림 열병.....114

스쿠타리며, 잘 있거라.....128

적십자와 나이팅게일 기장.....142

해 설.....154

연 표.....158

■역사 인명 사전.....161



플로렌스의 탄생

나이팅게일이란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이팅게일이란 말은 영어인데, 사랑스러운 새 이름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은 철새로서, 봄이 되어 4월경이면 남쪽 나라에서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초저녁부터 밤이 이슬해질 때까지 고운 소리로 울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이 새를 매우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 나라에서 찌꼬리나 뻐꾸기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듯이, 나이팅게일은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온 새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저그 저그 저그 텔레우’하고 아주 구슬프게 운답니다. 그 울음 소리가 구슬프고 고와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모양이지요. 옛날부터 몇몇 영국 사람이, 이 나이팅게일을 노래나 시로 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나이팅게일이란 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훌륭한 영국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지금으로부터 백 수십 년 전인 182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에드워드 나이팅게일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프랜시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즉, 나이팅게일이란 말은 이 훌륭한 여자의 성이고, 이름은 플로렌스입니다.

성이 새 이름과 같다니 참 재미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플로렌스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 에드워드와 어머니 프랜시스는 1818년에 결혼하여, 곧 신혼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백
수십 년 전의 일이
므로 비행기는 물론
이고, 아직 기차도
없을 때입니다. 그들
은 자기 집에 있는
커다란 마차를 타고,
마부와 하녀를 데리
고 여행을 떠났습니
다. 영국에서 바다를
건너 프랑스로 건너
간 다음, 다시 밝고
따뜻한 이탈리아를
여행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트
기로 두세 시간 만
에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
당시는 마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몇 달이나 걸리는 신흥 여행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돈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여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하인과 하녀를 데리고
다니며 여행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에서는 좋은 집을 세로 얻어서 한동
안 살기도 했습니다.

플로렌스의 언니가 태어난 것은, 에드워드와 프랜시스
 즈가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와 초록빛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나
 폴리 시는, 옛날에는 파세노프(성스러운 처녀)라고 불
 리었습니다.





나폴리에서 태어난 플로렌스의 언니는 이 그리이스 식 이름을 따서 파세노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나이팅게일 부부가 나폴리에서, 역시 이탈리아에 있는 플로렌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옮겨서 살고 있을 때, 또 딸을 낳았습니다.

맏딸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이가 태어난 고장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플로렌스란 이름은 <꽃 꽃의 아름다움>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플로렌스의 추억이 작은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갓난아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게 아주 멋진 이름을 지어 주신 셈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영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사랑스럽고 귀엽게 들리는 이름입니다.



나이팅게일이 한 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태어나던 1820년경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조선 시대의 말기로, 아직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비녀를 꽂고 바깥 출입을 삼가 하던 봉건적인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와는 교통이 별로 없던 우리 나라는 멀리 유럽 한 구석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으며, 조정에서도 서양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고 사정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우리 나라와 사정이 달랐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탈리아로 신흥 여행을 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영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영국 정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활약하고 있는 영국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 사람들의 세계 진출은 더욱 활기를 띠어, 플로렌스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동쪽은 인디아로부터 서쪽은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세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생기가 넘치고 강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영국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배는 그 때까지만 해도 돛에

바람을 받아서 움직이던 나무로 만든 돛단배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돛단배가 증기선으로 바뀌고, 이윽고 쇠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플로렌스가 태어나서 자라날 무렵입니다. 와트라는 영국 사람이 증기 기관을 발명하여, 그것이 기차에 이용되거나 기선에 사용되기도 했으며, 도시에서는 공장의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병원만은 오늘날의 병원과는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의사가 평소에 입는 옷 그대로,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도 했습니다. 간호원도 있기는 했었지만, 대개는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여자들뿐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늘 술에 취해 있는 행실이 난잡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병이 낫지는커녕 죽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같으면 병에 걸려도 병원에 입원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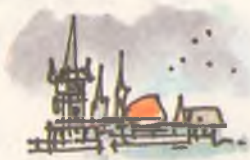


플로렌스는 것처럼 형편 없는 병원을 오늘날의 병원처럼 깨끗하고, 병을 고치는 병원으로 개선하기 위해 힘쓴 사람입니다.

무식하고 품행이 좋지 않은 간호원 대신에, 깨끗하고 의사를 도와 부지런히 일하는, 교육을 받은 간호원을 세상에 내보내는 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플로렌스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어째서 온 세계 사람들이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엠브리에 있는 저택

이탈리아는 지중해에 면해 있는 따뜻한 나라입니다. 태양이 눈부실 만큼 찬란히 빛나서, 북쪽 나라인 영국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러운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찌기 문명이 찬란히 꽃 핀 이 나라에는 곳곳에 역사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 라파엘로의 그림, 그리스도 교의 유명한 교회 등 구경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경하러 다니며

태평스럽게 지내자면

정말 한이

없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부모가 영국을 떠나 이탈리아에 온 지도 어느덧 3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그만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영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형제들 생각도 났습니다. 그러자, 고향이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또다시 마차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국의 한가운데쯤 되는 곳에 있는 더어비 현에 아버지의 땅이 있었습니다. 리이 허어스트라는 곳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곧 이 언덕 위에
다 커다란 저택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썩 마음에
드는 집이었습니다. 침실이
열 다섯이나 있는
집입니다.



언덕 위이기 때문에 전망이 무척 좋았습니다. 창 너
머로 내다보면 우선 아주 넓은 정원이 있고, 그 저 쪽
에는 목장과 집들이 가파르지 않은 경사를 따라내려
가면서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아장아장 걸음을 옮겨 놓는 플로렌스의 귀여운
눈에, 이 널따랗고 풍성한 풍경이 몇 번이나 비쳤다가
사라지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방의 겨울 날씨는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파세노프와 플로렌스는 기관지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더 따뜻한 곳이 좋겠다고 해서, 1825년에 이번에는 훨씬 남쪽인 햄프셔 지방에 있는 별장을 샀습니다. 엠브리에 있는 저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리이 허어스트에 있는 집보다 훨씬 큰 저택이었습

니다. 석남화가 곱게 피어 있는 널찍한 정원도 있었읍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이 엠브리 저택은 친척들의 집과 가깝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큰 도시인 런던도 그리 멀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엠브리에 집을 마련한 후부터는, 플로렌스는 1년 중의 거의 태반을 가족들과 그 곳에서 지냈으며, 날씨가 화창할 때는 런던에 가기도 하고, 여름에는 리이 허어스트에 있는 집에 가서 지내기도 하면서 자라났읍니다.

어릴 때의 플로렌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 주는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줄리어라는

줄리어 이모가 그린 그림



이모가 그렸읍니다. 깡마르고 키가 큰 아버지를 한가운데에 두고서, 언니인 파세노프와 플로렌스가 산책을 하고 있는 뒷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버지의 프록코우트 자락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언니이고, 혼자서 열심히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이 플로렌스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그림입니다.

집안에서는 플로렌스를 플로라고 부르고, 언니인 파세노프는 파프라고 불렀습니다.

파프와 플로는 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파프와 플로는 좋아하는 아버지와 가끔 이렇게 함께 산책을 했는가 봅니다. 어린 파프와 플로에겐 널따란 정원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운 꽃이 피어 있는가 하면, 나뭇가지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이따금 다람쥐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재빨리 건너가곤 합니다.



그런데, 플로나 파프가 산책을 하거나 놀거나 하는 상대는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도 계십니다. 보모인 게일 할멈도 있습니다. 그 밖에 크리스티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크리스티 선생님은 파프와 플로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기 위해, 나이팅게일의 집에서 살고 있는 여자 선생님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외삼촌과 이모와 외사촌 형제들이 곧잘 다니러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그마치 10형제였기 때문에, 파프와 플로에겐 외삼촌과 이모가 아주 많았습니다.



외사촌 형제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침실이 이런 때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파프와 플로는 외사촌 형제들과 잘 놀았습니다. 놀거리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인형도 많이 있습니다. 개도 몇 마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냥을 가실 때에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망아지도 있습니다. 고양이도 있습니다. 새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버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들처럼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 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다지 오래 된 일이 아닙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간호원이 되어, 멀리 떨어진 크림 반도에서 싸우고 있는 영국 장병들을 위해 그 곳에 갔을 때, 영국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 세상의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딸에게 간호원 노릇을 시킬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어머니처럼 아름답고 상냥한 여자가 되어 훌륭한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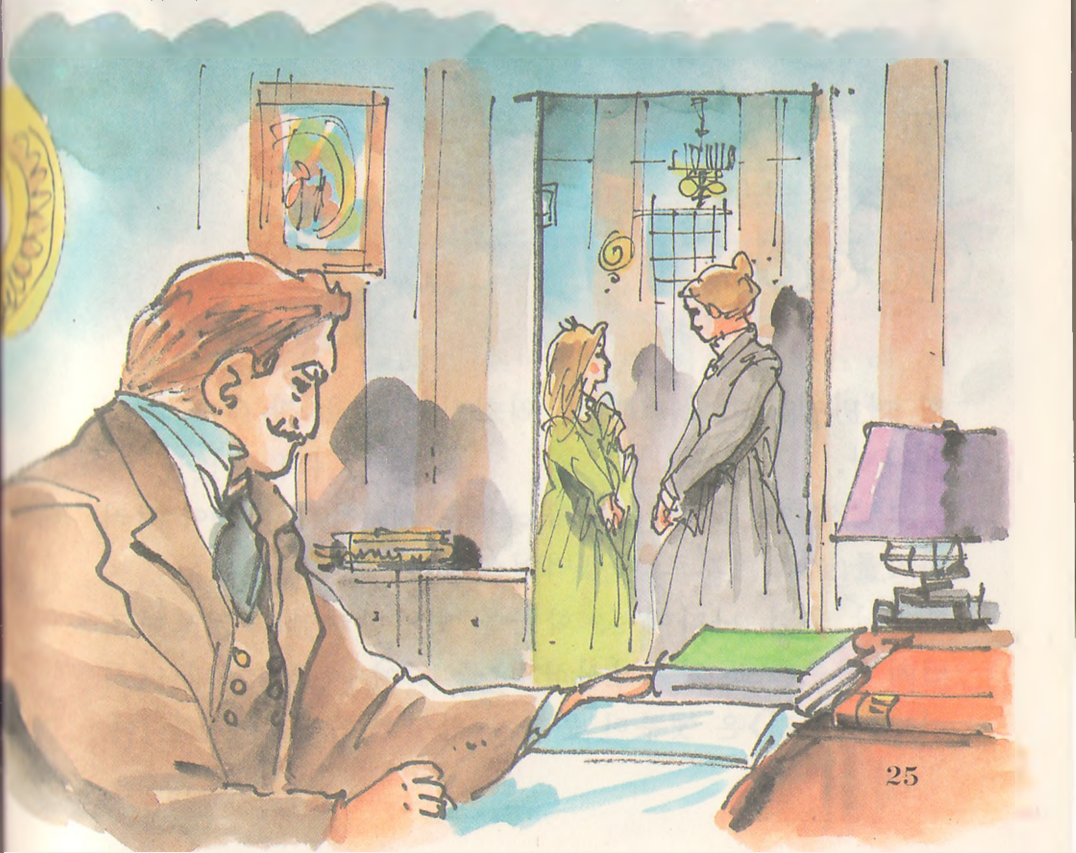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자는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음씨가 곱고 착하고, 집안 살림살이나 잘 하고,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지만 하면 된다고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의 아버지는 그 당시의 이런 생각보다 진보된 생각을 품고 계셨습니다.

물론 마음씨가 곱고 착해야 하고, 집안일도 잘 하고, 자식도 잘 길러야 하며, 그리고 피아노도 칠 줄 알고, 그림도 그릴 줄 알면 더욱 좋으며, 그뿐만 아니라 공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파프와 플로를 위해 크리스티 선생님을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크리스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학자였으므로, 그 당시의 여자 선생님이 지니고 있는 학식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말





한 마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파프와 플로에게,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옛날 우리 나라에선, 학문을 연마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한문으로 된 《사서삼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사서》와 《삼경》은 옛부터 문화가 발달한 중국의 책입니다.

중국 책을 술술 읽을 줄 알면 학식이 있다고들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플로렌스가 어릴 때의 영국에서는, 유럽에서 일찌기 번영한 그리이스나 로마 시대의 옛 책을 읽는 것이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파프와 플로에게 우선 그리이스와 로마의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시간표를 짜놓으시고는, 상당히 엄하게 두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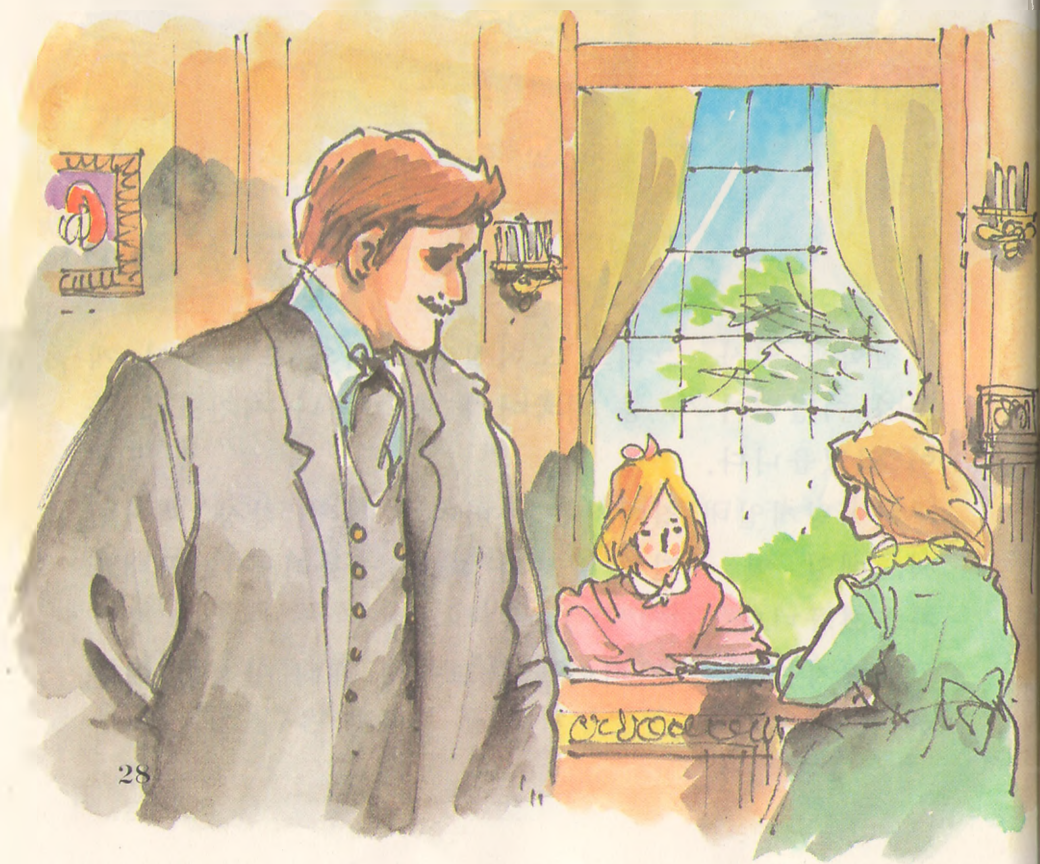
철학과 역사, 그리고 도이칠란트 어와 프랑스 어, 게다가 이탈리아 어 등 외국어가 세 가지나 시간표에 들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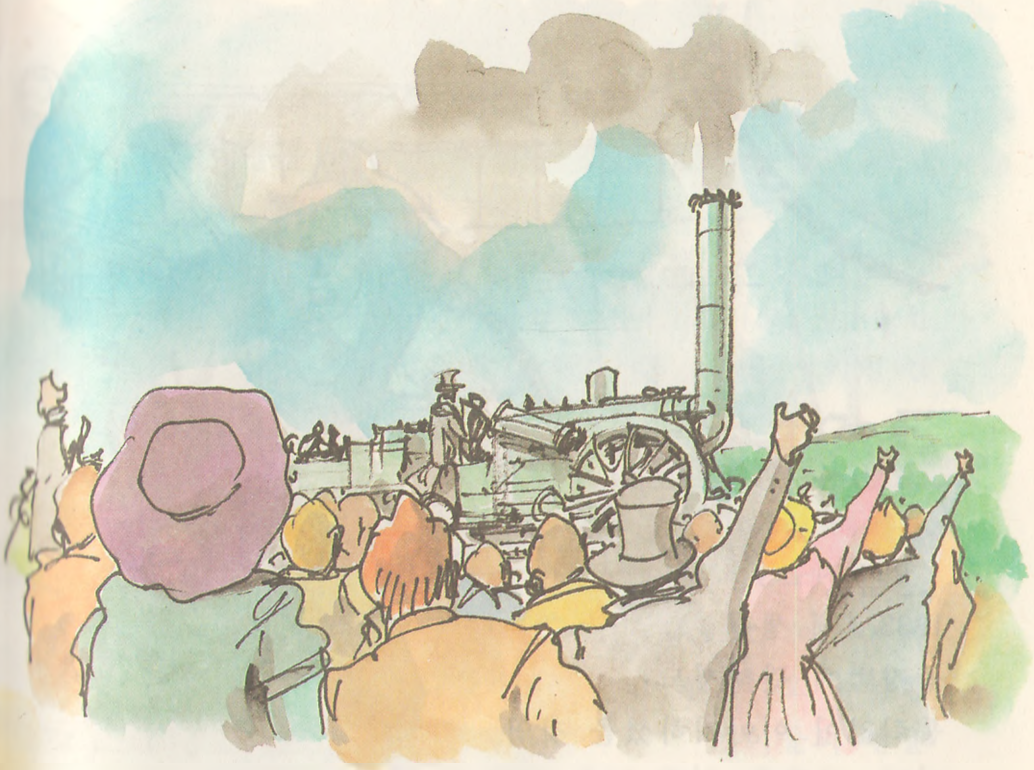
나이팅게일네 집에서는 아버지가 집에 항상 계시면서, 매일 몇 시간씩 플로와 파프를 불러 시간표대로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열성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플로의 아버지 에드워드가 딸들의 교육에 이토록 열성적이었던 것은, 자기 자녀를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시켜 일류 학교에 넣음으로써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도 학문이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딸도 열심히 배웠고, 특히 플로가 공부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르치면 가르치는만큼 플로의 공부는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언니인 파프는 가끔 공부에 싫증이 나면, 살짝 빠져 나가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가서 놀기도 하고, 정원에 나가기도 했읍니다만, 플로는 아버지와 함께 공부하는 것과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았읍니다.

아버지는 그 무렵의 영국 이야기를 자주 해 주셨읍니다. 아버지와 플로가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지금에 와서는 알 길이 없지만,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에 세계에서 최초로 철도가 놓여져, 처음으로 기차가 사람을 태우고 달렸는데, 아마 그 이야기도 했을 것읍니다. 그것은 플로의 나이 열 살 때인 1830년의 일이었읍니다.



아버지는
1833년에 생긴
공장법에 관해서도
틀림없이 이야기하셨을 것입
니다. 이것은, 아직 아홉 살이 안 된
어린이를 공장에서 쓰면 안 된다는 법률입니다.

그 때까지 영국의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여섯 살만
되면 벌써 공장에 가서 품삯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아
이들은 몸이 작으므로, 기계 밑에까지 기어 들어가서 청
소를 할 수 있고, 품삯도 조금만 주면 됩니다.

그 당시의 공장은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고, 밤
10시에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이
나 일을 하는 셈입니다. 한창 자랄 때인 어린이들이 놀
지도 못하고, 하루에 16시간이나 일을 해야 하니 얼마
나 힘들었겠읍니까. 깜박 즐기라도 하면 감독하는 사
람이 가죽 채찍으로 마구 때립니다.

유치원에나 다닐 나이인, 아직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영국 사람이 차차 늘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아홉 살이 안 된 어린이들을 공장에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세 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플로의 아버지도 국회 의원이 될 생각을 한번 품었던 사람이므로, 이런 얘기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린 플로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불쌍한 아이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캡이라는 개

플로렌스가 어릴 때, 인형을 간호해 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형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더니,

“어머나, 열이 있구나. 가만히 누워서 몸조리를 해야겠다.”

하고는, 인형을 뉘고 수건을 찬물에 적셔 이마에 얹어 주곤 했다고 합니다.

인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언니인 파프는 물건을 거칠게 다루어서 인형을 곧잘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로는 뭐든지 말끔하게 정돈하는 성미여서, 것처럼 팔이나 다리가 떨어진 인형을 곧잘 말짱히 고쳤다고 합니다. 인형의 병이나 다친 데를 잘 고쳐 주는 성품이었으므로, 자라서 어른이 된 다음에 훌륭한 간호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엠브리에 있는 저택 근처에 아름다운 목장이 있었는데, 스미더라 부르는 가난한 홀아비가 그 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미더는 캡이라는 콜리 종류의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개는 매우 영리해서, 양을 모는 데 펍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가 목사님과 함께 잡목이 우거진 숲을 걸어가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바람이 일고 눈보라가 휘몰아쳐 왔
습니다. 그 때, 개가 슬프게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파진 플로는 목사님이 말
리는 것도 듣지 않고, 개의 울음 소리가 나는 방향으
로 달려갔습니다. 눈보라를 무릅쓰고 벼랑을 내려가,
개울을 뛰어넘어 곧장 달려갔습니다.



가 보니까, 캡이 여우를 잡으려고 놓은 덫에 걸려 갱 갱 울고 있었읍니다.

플로는 아프고 괴로워서 미친 것처럼 울어 대는 캡을 쇠뿔에서 간신히 빼내어 안고는, 목사님과 함께 스미더의 오두막집에 데리고 왔읍니다. 그리하여, 다친 다리를 깨끗이 소독한 다음 숨씨 있게 붕대를 감아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나이팅게일답게 마음씨 곱고 용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정말로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책을 읽어 보면 목사님과 플로는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있었다고 써여 있기 때문입니다.

목장에서 양을 치는 사람도 스미더란 사람이 아니라, 로저 아저씨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가 덩에 걸려 다친 것이 아니라, 장난꾸러기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서 다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로가 다친 개를 불쌍히 여겨서, 목사님에게 물어가면서 다친 데를 치료해 주었다는 대목은 같지만, 이 책에서는 다행히 개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부어 있었다고 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잘한 부분에 꽤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플로가 열 살쯤 된 해의 어느 봄날 오후, 망아지를 타고서, 말을 탄 목사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이란 소년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이 소년은 양을 치는 컵이란 아저씨의 부탁으로 다리를 다친 컵 아저씨의 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리를 다친 개는 양을 지킬 수 없으므로, 불쌍하지만 차라리 죽여 버리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과 플로는 개가 가엾어서 살려주는데, 그 대목은 세 번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를 가엾게 여겨서, 열심히 치료해서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플로가 고쳐준 개가 양을 치는 사람의 개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양을 치는 사람이 스미더인지, 로저인지 컵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계절이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알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소녀 시절의 이야기에는 꼭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씨 착하고, 한번 생각한 일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무릅쓰고 해 나가는 플로렌스답다고 생각됩니다.

아뭇튼 픽 오래된 일이므로, 분명치 않은



점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 때, 일선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영국 병사들을 간호하는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돌아왔을 때, 영국 사람들은 플로렌스가 천사 같은 일을 했다고 떠들어 댔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곧잘 플로렌스 이야기를 했으며,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하며 플로렌스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인형 이야기도, 개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을 옮기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것, 즉 플로가 어릴 때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해 주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일기입니다. 플로가 마음 속에 품은 것을 모조리 써 놓은 일기입니다.

1837년 2월 7일의 일기에, 즉 플로가 열 일곱 살의 생일이 되기 며칠 전에,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플로렌스야, 너는 장차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플로는 뒷날에 가서도 이 때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플로는 독실한 그리스도 교 신자로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플로 자신도 아직 똑똑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크고 좋은 집에서 살며, 손님들이나 청해서 즐겁게 이야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유럽 여행

파프가 열 여덟, 플로가 열 일곱 살이 되자 어머니 프랜시즈는 멀잖아 두 딸을 사교계에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님들을 많이 초대해야 합니다. 방이 여럿 있는 엠브리 저택이지만, 손님을 많이 초대하려면 그래도 아직 침실이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집을 뜯어 고칩시다. 더 멋있게 꾸미고, 부엌도 고쳐야겠어요.”

“집을 고치는 건 좋지만,
그 동안 어디서
살지?”



“대륙에 가면 되지요 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또
가요. 애들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 보고 싶어할
테니까요.”

아버지 에드워드는 여행을 매우 좋아하고, 유럽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탈리아에도, 프랑스에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 본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
다. 자기의 마음에 든 곳을 딸들에게 보이는 것도 즐
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르쳐 준 프랑스 어
나 이탈리아 어를 딸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 그것도 궁
금했습니다.



“가을이 되거든 감시다.”

이리하여, 엠브리 저택에는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으며, 감자기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는 아주 멋있단다.”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언니 파프는



“엄마, 난 파리에서 멋진 옷을 사겠어요.”

하고 들떠서 떠들어 댔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여행을 위해 특별히 마차를 설계해서 마추셨습니다. 6 필의 말이 끄는 이 마차는 어른이 열 사람이나 타도 끄떡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차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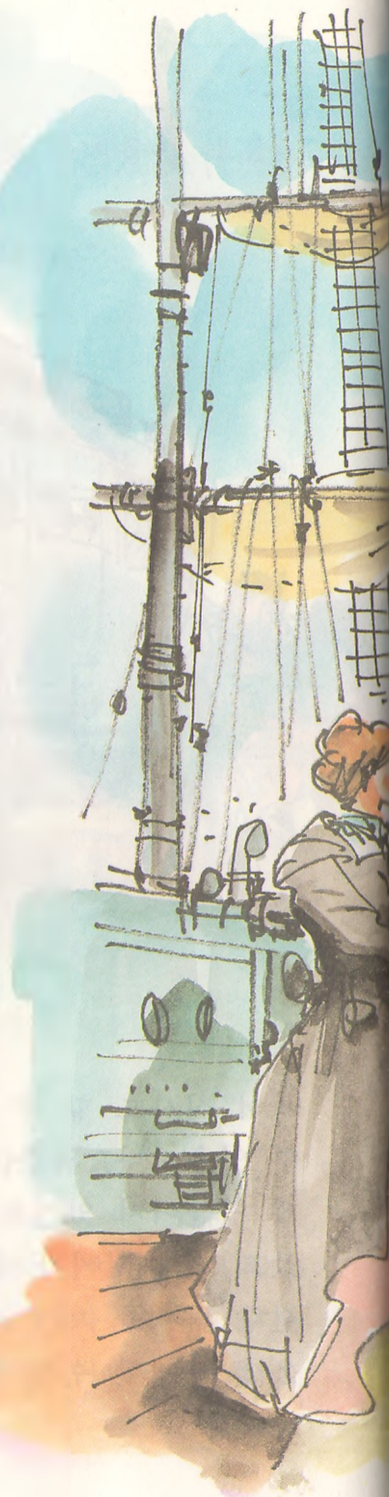


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책도 읽고 편지나 글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하면 드러누워 쉴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지붕 위에도 의자를 놓았으므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도 있고, 또 달리면서 경치를 마음껏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1837년 9월 8일, 나이팅게일네 집안 사람들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파프와 플로 외에 어머니의 시중을 드는 하녀 일곱 사람이 새 마차를 탔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이므로, 사우샘프턴을 떠난 후 얼마 동안은 배로 여행을 하지만, 배가 프랑스에 도착하면 또 이 마차를 타고 달립니다. 난생 처음으로 간 유럽 여행이 얼마나 플로를 기쁘게 했는지, 그 때 플로가 적은 일기를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곳에 이르면 마차를 멈추고 그 곳에서 며칠을 지낸 다음, 다시 남쪽으로 옮겨 가곤 했습니다. 그 해의 연말은 남 프랑스의 니스에서 지냈습니다. 니스의 사교계는 나이팅게일네 가족들을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화려한 무도회가 열렸는데, 파프와 플로도 참석했습니다. 좋은 옷을 차려 입은 신분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음악에 맞추어 댄스를 하거나 즐겁게 이야







기를 하거나 합니다. 여러분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요? 계모에게 구박을 받아 부엌데기 노릇을 하느라고 늘 재를 뒤집어쓰는 신데렐라가 착한 요술장이를 만나, 덕분에 왕자님의 무도회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는 급히 집에 돌아가려다가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지요. 파프와 플로도 그렇게 화려한 무도회에 나가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1 월에는 이탈리아의 제노바에 갔습니다. 마치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꿈 같은 도시라고 감탄하면서,



연극을 구경하거나 오페라를 들으러 가기도 하고, 무도회에도 나갔습니다. 2월에는, 것처럼 가 보고 싶어 하던 플로렌스에 도착했습니다. 플로가 태어난 곳입니다.

플로렌스네 가족들은 이 곳에서 집을 한 채 얻어,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하는 한편, 이 곳에서도 무도회나 오페라를 들으며 재미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 플로렌스 시의 오페라는 유럽에서 제일이라는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플로는 마치 오페라에 미친 사람처럼 오페라에 열중했습니다.

“매일 밤 오페라를 들으러 가고 싶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1주일에 세 번은 데리고 가 주세요.”

하고 플로는 어머니에게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플로렌스에서는 음악을 가르치는 가정 교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훌륭한 음악 선생님이 많

았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파프와 플로에게 노래를 부르는 법과 피아노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온통 음악으로 날이 밝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플로에게 가장 잊혀지지 않는 인상을 준 것은 제네바에서 만난 이탈리아의 애국자 시스몬디였습니다.

이탈리아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한테 점령되어 있었답니다. 외국 사람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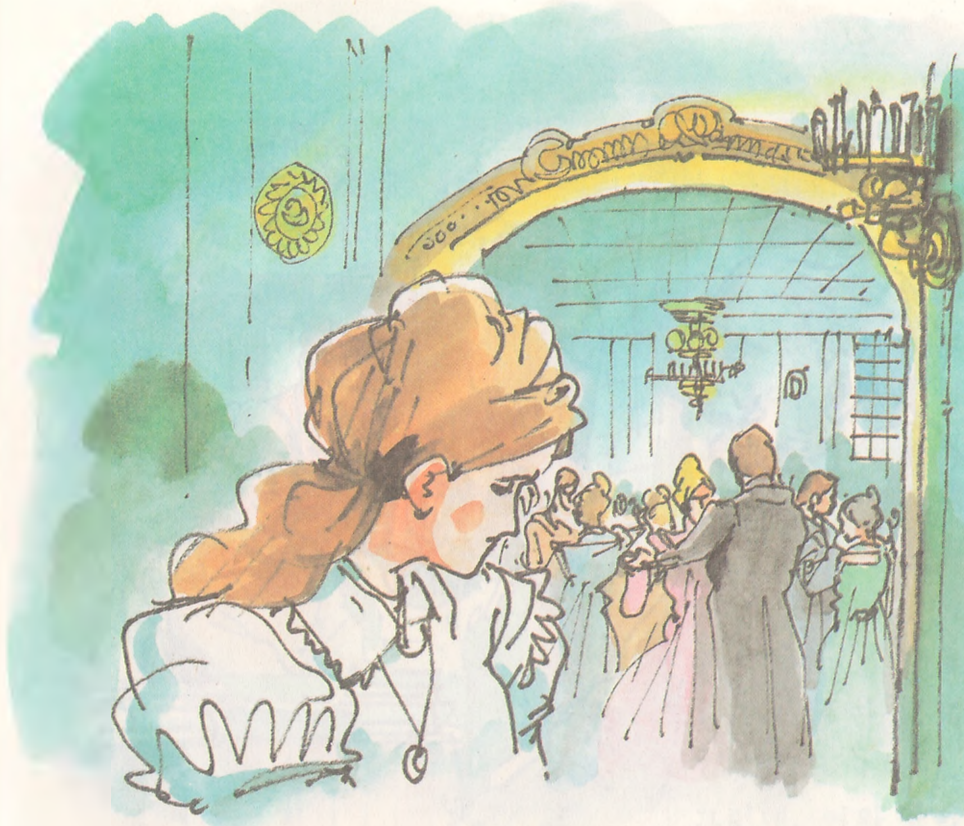




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정말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독립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러한 독립 운동을 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역사 학자인 시스몬디도 오스트리아 정부가 노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스몬디는 이탈리아를 빠져 나가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1838년 9월, 반 년 남짓 산 플로렌스 시를 떠난 나이팅게일네 가족들은 스위스로 갔는데, 제네바에서 이 시스몬디를 만났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시스몬디는 제네바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면서도, 오로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나아가는 시스몬디의 모습이 플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게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의 일이 플로의 가슴 속에 되살아났습니다.

‘내 일,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니, 즐거운 무도회도 오페라도 어쩔지 댄 세상의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폭 풍 우

1839년 4월에, 나이팅게일네 가족들은 1년 7개월이나 걸린 오랜 여행 끝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엠브리에 있는 저택을 고치는 일이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런던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여행이었어요.”

하며, 어머니는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나 프랑스의 파리, 어느 곳의 사교계에서도 딸들의 평판이 좋은 것에 흐뭇해했습니다.



‘아름답고 품위가 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교양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며 칭찬하는 것을 들을 때, 부모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영국 사교계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겠지. 그리고, 파프도 플로도 행복한 결혼을 할 거야.’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플로의 마음만은 남모르는 심한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사교계에서 우아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고, 아니,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하느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내 몸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플로는 말수가 적어지고, 제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엠브리에 있는 집이 멋지게 개조되었습니다. 아이들
까지 데리고 온 다섯 가정이 언제든지 한꺼번에 묵
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집이 넓어졌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새로운 마
음으로, 또 사람들을 엠브리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손님들을 잘 대접해 드리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일에 신경을 썼
습니다.





그러나, 플로는 이와 같이 요란스런 것을 차차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을 돌봐 주거나, 환자를 간호하거나 하는 일에 훨씬 더 마음이 쏠렸습니다.

마침 그 때, 할머니께서 병환이 나셨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플로는 아버지와 함께 곧 문병하러 갔습니다. 할머니의 병세가 대단히 좋지 않아서, 플로가 남아서 할머니의 병구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하인들과 같이 살다가 병환이 나서 누워 있기 때문에, 집 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플로는 가늠하다고 할 만큼 할머니의 병구완을 잘 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은 차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리이 허어스트에서, 게일 할멈이 몸져 누워 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게일 할멈은 파프와 플로를 어릴 때부터 돌봐 준 유모입니다. 유럽을 여행했을 때에도 함께 다녔던 할멈입니다.

플로는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리이 허어스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병구완을 했을 때처럼 열심히 할멈의 병구완을 했습니다. 할멈은 플로의 친절을 얼마나 고마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할멈은 병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플로의 손을 잡고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플로가 제 몸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간호했기 때문에,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여럿 있는 외삼촌과 이모님 댁에서 누가 병이 나기만 하면 플로를 부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병구완을 하면서, 플로는 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간호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울즈버리에 있는 병원에 가서, 간호하는 법을 실제로 배워 와야겠다.’

플로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점점 짙어 갔습니다. 소울즈버리는 엠브리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병



원도 충실하고, 나이팅게일네 가족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파울러 박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이면 됩니다. 3개월 동안이면 꽤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플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파울러 박사가 엠브리 저택을 찾아왔을 때, 플로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형편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 당시 영국의 병원이란 형편 없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지금처럼 깨끗한 흰 옷 따위는 입지 않았읍니다. 피와 때로 더러워진 프록코우트를 입고, 손도 씻지 않고, 소독도 안 한 더러운 메스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천을 붕대로 썼읍니다.

간호원은 더 형편 없었습니다. 간호하는 법이라고는 전혀 배운 일도 없고, 글자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가난하고 늙은 여자들이 보통인데, 언제나 술에 취한 채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침대는 땃국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환자들을 마구 집어 넣어, 한 침대에 두 환자가 함께 누워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환자의 똥이나 오줌도 치울 줄 몰랐고, 하수도 설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들어서면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대개의 병이 병균으로 말미암아 전염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프랑스의 파스퇴르란 사람인데, 파스퇴르가 그것을 발견한 것은 1858년입니다.

플로가 소울즈버리에 있는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1845년이므로, 사람들이 아직 병균에 대해 몰랐을 때입니다. 병원이 불결해도 그 불결함이 병을 더 악화시키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불결한 병원 안에서 환자들은 그대로 죽어 갔습니다. 그런 실정이니, 어느 부모가 딸을 병원으로 보내려고 생각인들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과 언니가 한탄한 것은 그런 일보다도, 훌륭한 가문인 나이팅게일 집안의 딸이 신분이 천하고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들이나 하는 간호원 노릇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들, 가문을 더럽히는 것이다. 플로가 간호원이 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가문의 명예가 하루 아침에 와르르 무너진다. 화려한 사고

계도, 무도회도, 행복한 결혼도 모두 사라지고 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기껏 그런 천한 간호원 노릇이나 하라고 너
를 아름답고 착하게 키운 줄 아느냐?”

“그리이스와 로마의 학문을 가르쳐 준 것도, 유럽 여
행을 시킨 것도 너를 간호원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플로에겐 가장 너그러운 아버지마저 역정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런던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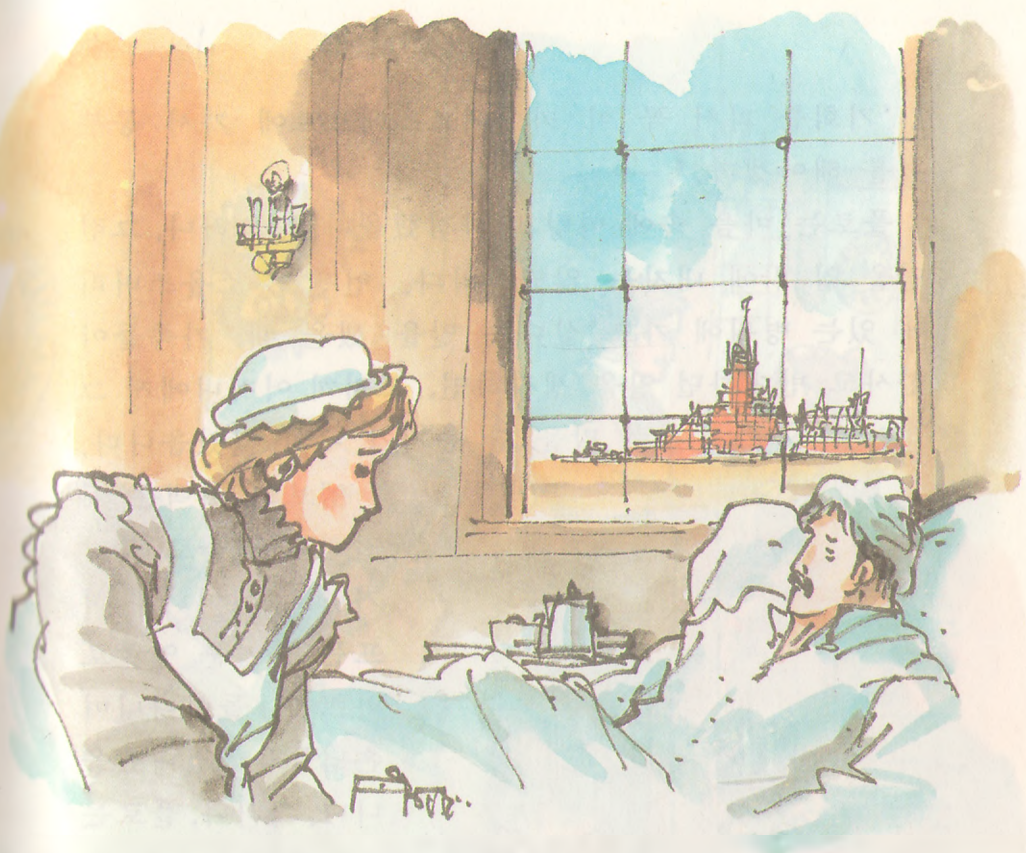


시드니 씨를 만나다

런던 주재 프로이센 대사는, 나이팅게일네 집을 종종 찾아오는 손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플로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이제르스베르트 연구소란 곳이 이번에 생겼어요. 거기서는 그리스도 교의 목사와 전도사들이 중심이 되어 간호원들에게 간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어머나, 그 연구소가 어디 있죠?”

“뒤셀도르프 근처지요.”

“아이, 좋아라. 나도 가 봤으면…….”

뒤셀도르프는 라인 강변에 있는 도이칠란트의 도시입니다.

플로는 곧 카이제르스베르트 연구소에 관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생긴 이 연구소에서는 사람들이 제 몸은 돌보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오로지 남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점이 플로에게는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기회를 봐서 꼭 이 카이제르스베르트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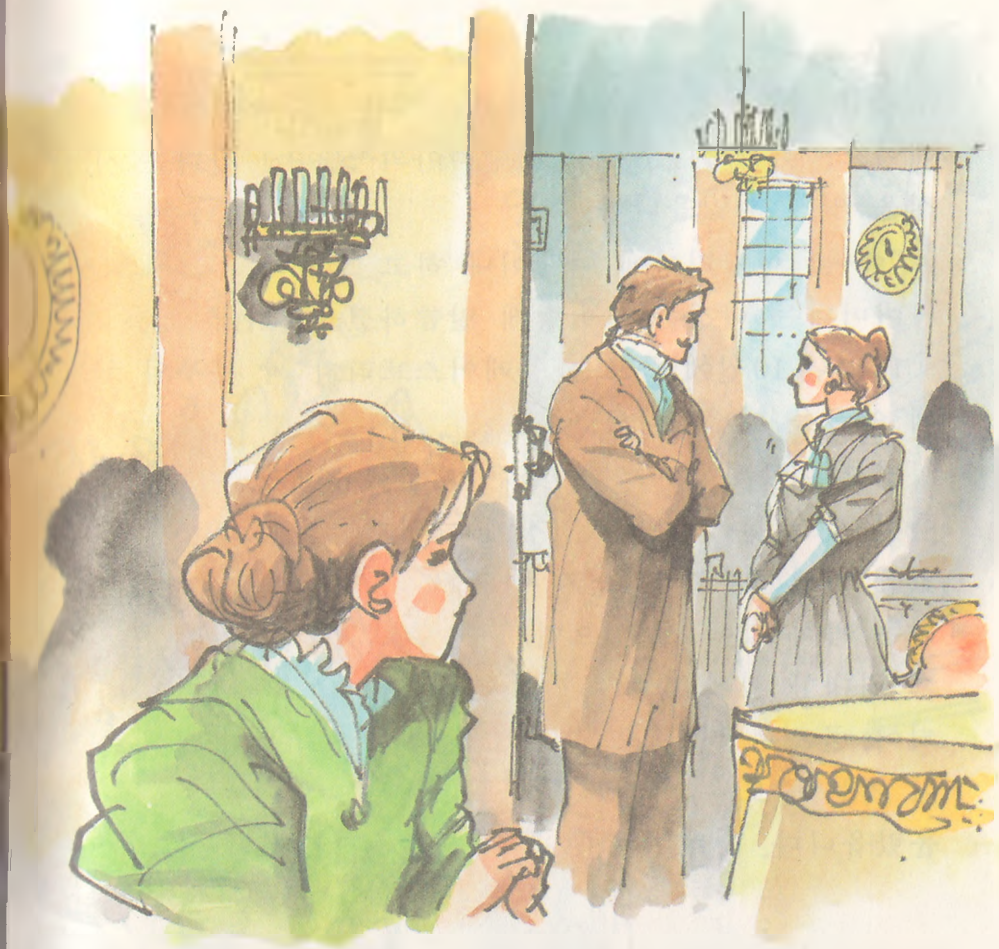
플로는 마음 속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읍니다. 언젠가 소울즈버리에 있는 병원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가족들이 한사코 반대하던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읍니다.

엠브리 저택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어머니와 파프는 즐거운 얼굴로 바쁘게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접대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는 2층에 있는 제 방에 틀어박혀, 실제로 간호하는 법에 관해 남 몰래 공부하며,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부디 제게 힘을 주소서.’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플로의 얼굴에 기운이 없어 보이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것을 보고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처럼 명랑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애에게 또 여행을 시키면 어떻겠소?”

“글쎄요, 그게 좋겠군요. 이탈리아에선 그토록 명랑했잖아요. 오페라에도 열중했고, 무도회에도 기꺼이 나가곤 했으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이웃에 사는 블레이스브리지 씨 부부가 이탈리아의 로마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야, 이탈리아에 여행이나 하고 오너라.”

어머니는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47년 10월에 플로는 블레이스브리지 씨 부부와 함께 영국을 떠났습니다.

밝고 따듯한 로마의 겨울은 쾌적했습니다.

특히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라는 벽화 밑에 서 있으면,

그 위대한 힘에 감동

되어, 플로는 시간

이 가는 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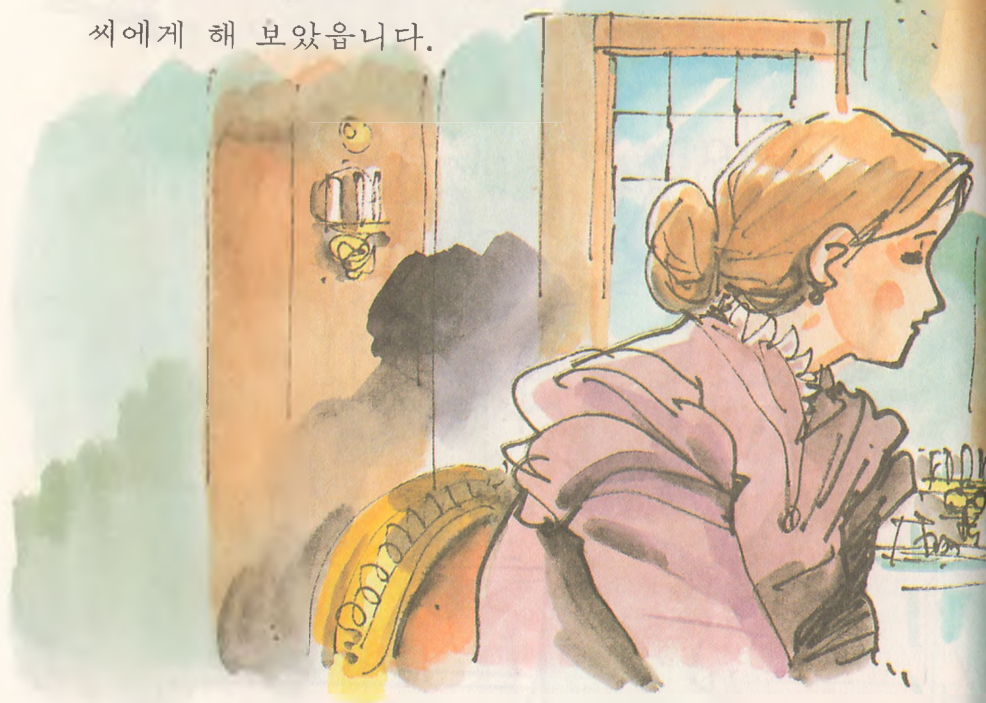
몰랐습니다.



사람이 살아 나가는 자세와, 자기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에 대하여 뭔가 가르쳐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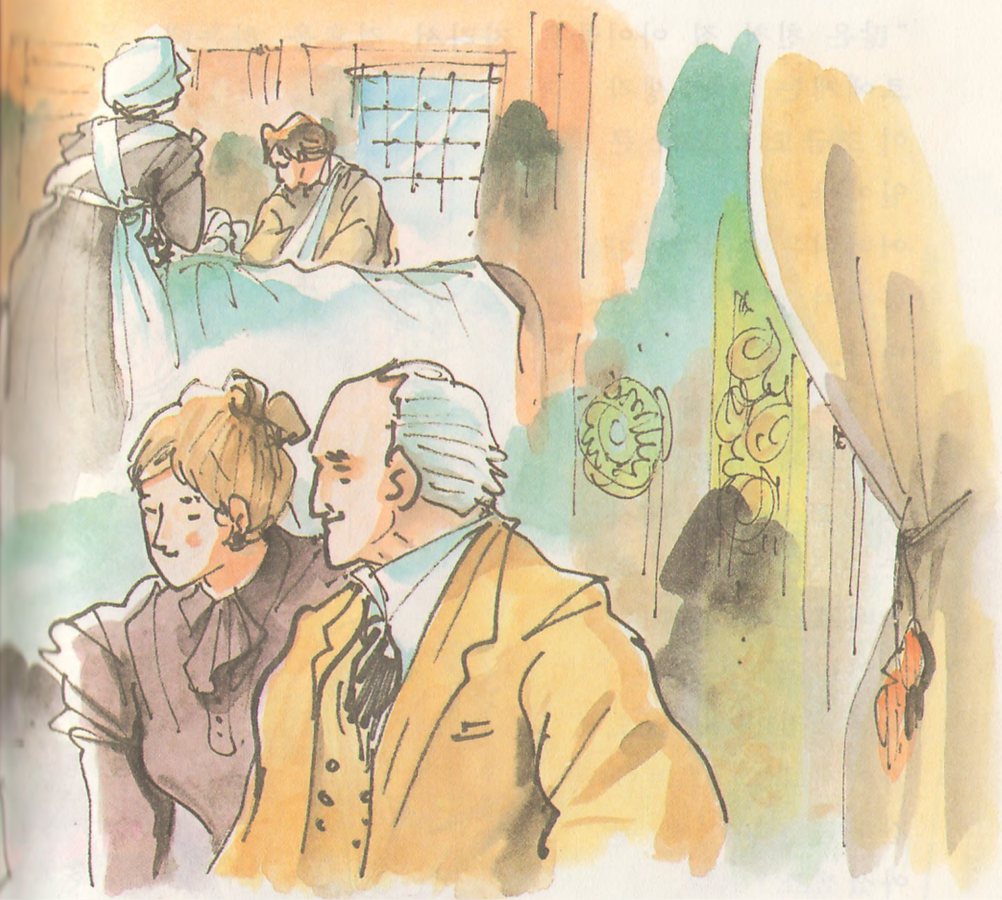
플로는 로마에 와서 몇 사람의 영국인을 만났습니다. 시드니 하아버어트 씨 부부는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 플로를 특히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시드니 하아버어트 씨는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일 수상 밑에서 장관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피일 내각이 총사직을 했기 때문에, 한가로와져서 이탈리아에 여행을 왔습니다.

플로는 큰마음먹고, 자기가 평생을 바치려고 생각하는 간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아버어트 씨에게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부부는 플로의 의견에 열렬히 찬성해 주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누구나 반대했는데, 장관을 지낸 하아버어트 씨 부부가 진심으로 찬성해 주었기 때문에 플로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플로는 지금까지 남 몰래 공부해 온 영국 병원에 대한 지식을 하아버어트 씨 부부 앞에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생각도 털



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아버어트 씨는 일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플로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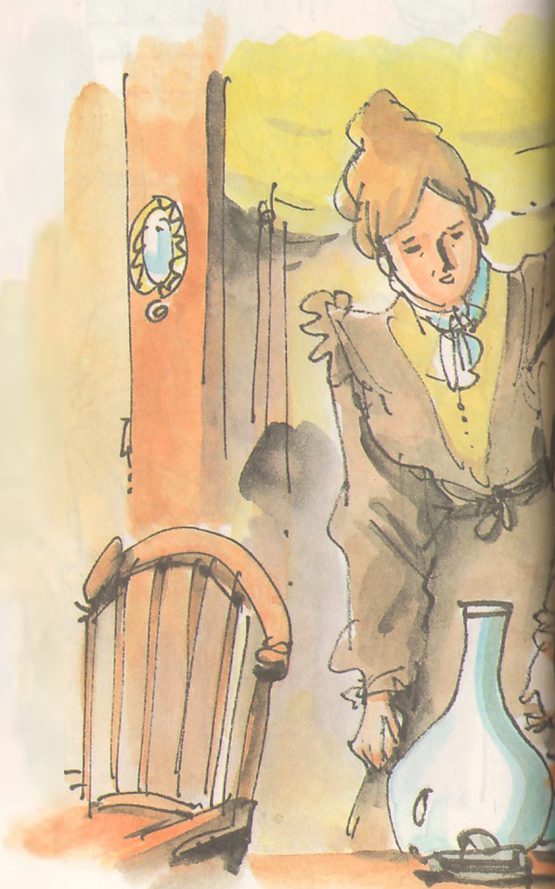
플로는 완전히 명랑한 성품을 되찾고 건강해져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플로는 건강해진 것을 보고 기뻐했으나, 플로의 생각이 그전보다 더 굳어진 것을 보고 낙심하였습니다.

“많은 친척 집 아이들은 자라서 결혼을 하는데, 플로에게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 큰 일이야.”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 카이제르스베르트에 가고 싶어요. 프로이센 대사는 따님을 카이제르스베르트에 보내는 모양이에요. 어머니, 좋은 집안의 딸도 카이제르스베르트에 간다는 걸 이제 잘 아셨겠죠?”



플로는 리처드 밀른이라는 청년이 청혼을 해 온 것을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플로를 안타깝게 지켜 보고만 계셨습니다.

마침 그 때, 블레이크브리지 씨가 플로를 이집트에 데리고 가도 괜찮겠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로마를 여행했을 때는 플로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지만, 어쩌면 이번에는 잘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플로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플로가 떠나면 이집트로 여행하는 것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이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카이제르스베르트에 들르기로 하고, 플로가 세 번째로 외국 여행을 떠난 것은 1849년의 가을이었습니다.

플로는 이미 스물 아홉 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임즈》의 기사

1854년 3월 27일, 영국과 프랑스는 터키에 쳐들어온 러시아에 대하여 힘으로 이것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제멋대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 함대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 흑해에 들어갔으며, 러시아의 함대를 세바스토폴 항에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 요새는 수비가 견고해서 연합국은 뜻대로 육군을 진격시킬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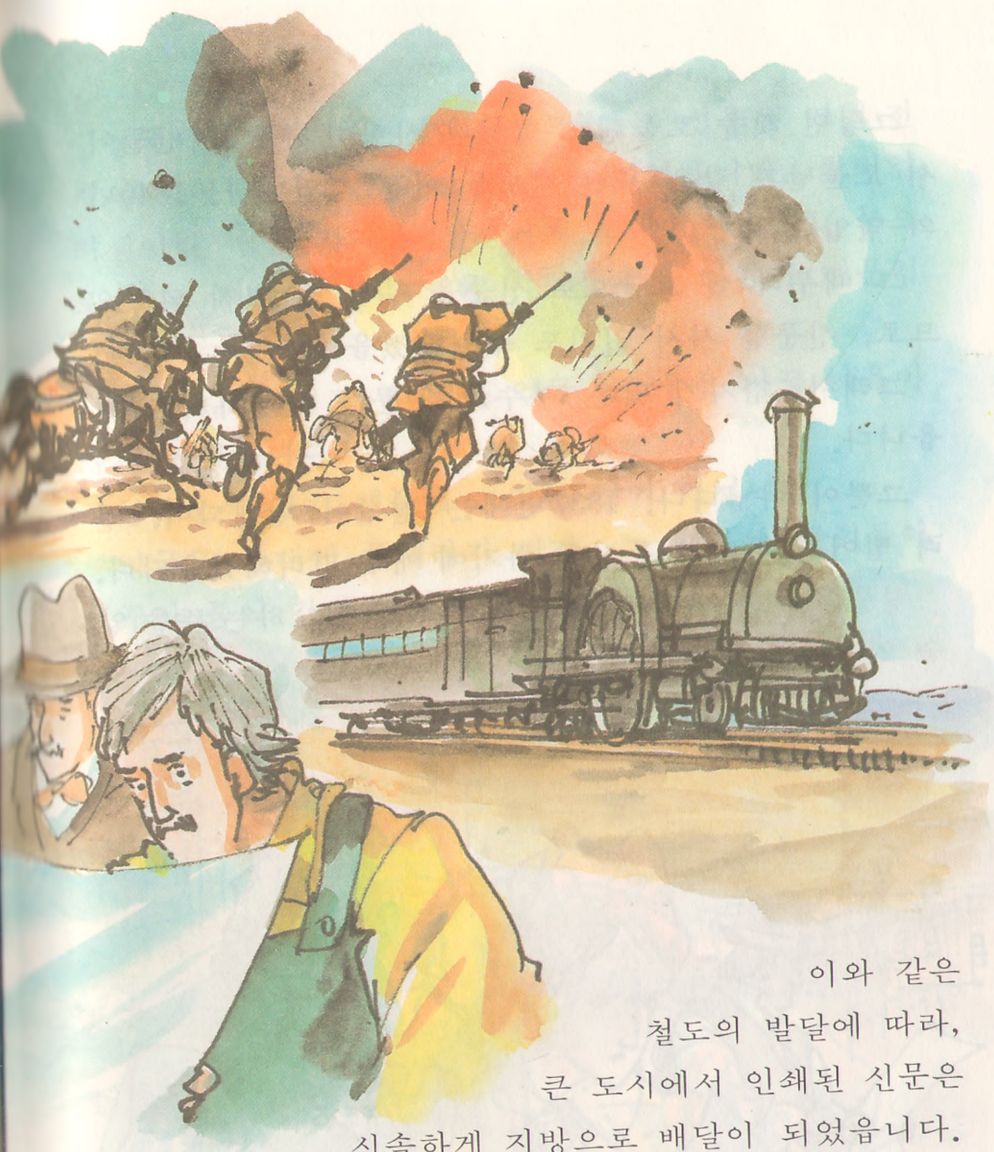


영국 국민은 매일 영국군이 큰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만이 뉴우스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던 시대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모두들 다투어 신문을 읽었습니다.

왜냐 하면, 크림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에 비로소 영국에서는 신문이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로는, 철도의 발달을 들 수 있습니다. 1830년, 철도가 리버푸울과 맨체스터 사이에 개통되었다고 앞서 쓴 바 있는데, 1848년에는 5000마일의 철도가 전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철도의 발달에 따라,
큰 도시에서 인쇄된 신문은
신속하게 지방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영국에서 우표 제도가 실시된 점입니다. 그 때까지는 거리에 따라 우편 요금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던 것을 로울랜드 힐이란 사람이 우표를 만들어서 오늘날과 같은 우편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1840년의 일입니다.

그 때부터 짝 요금으로 신문을 부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신문을 사서 읽기도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부수의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837년에는 전신이 발명되어, 멀리 떨어진 나라와 통신을 하기에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신문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을 알 수 있겠지요?



영국에서 첫째 가는 《더 타임즈》라는 신문은 크림 전쟁의 기사를 다루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러셀이란 신문 기사를 전쟁터에 보내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취재한 것을 영국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임즈》를 읽은 영국 사람들은 가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영국군이 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군 부대에 콜레라가 퍼져, 그 때문에 군인들이 자꾸만 죽어 간다는 기사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군대 위생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르마 강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영국 병사들이 간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 간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영국 사람들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스쿠타리 야전 병원의 형편도 전해졌습니다. 터어키에 설치된 이 영국군 병원에서는 의사는 물론이고 간호하는 사람도 부족하며, 약도 붕대도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크림 반도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스쿠타리에 있는 야전 병원으로 후송되면 마룻바닥에 그대로 버려진 채 아무런 치료도 못 받고 죽어 간다.」

라고 신문에 실려 있었읍니다.

러셀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영국군의 야전 병원이 이렇게 형편 없는 데 비하면 프랑스 군의 병원은 아주 훌륭하다. 의사도 충분히 있고, 특히 거기서 일하는 카톨릭 교 수녀들의 정성 어린 간호는 다치고 지친 병사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영국은 카톨릭 교를 믿는 나라가 아니지만, 다 같이 그리스도 교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닌가.

부상을 입고 고통을 받는 크림의 전사들을 위해 몸을 바칠 영국 여성은 없는가?」



이 기사가 《타임즈》에 실린 것은 10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은 육군 장관 시드니 하아버어트 씨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시드니 씨는 곧 나이팅게일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에서 처음 만난 그 아름다운 플로 말입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에도, 시드니 씨는 플로를 몇 번 만났습니다. 플로는 그 후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에 더욱 열심이고, 카이제르스베르트를 두 번이나 방문했다고 하며, 그 후 런던에 있는 자선 병원에서 감독으로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플로에게 부탁하자. 플로라면 모든 영국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스쿠타리의 영국군 병원을 훌륭히 운영해 주겠지.’

피일 내각 때 육군 장관으로 있던 시드니 하아버트 씨는, 지금은 애버딘 내각의 육군 장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림 전쟁 때문에 몹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아버트 씨는 당장 플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쪼록 당신이 스쿠타리에 가서, 영국군 병원을 위하여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야전 병원에서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영국이 넓기는 하지만 오직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신에게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용기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일로, 《타임즈》의 기사를 읽은 10월 14일, 플

로렌스 나이트링게일도 단단히 결심을 한 끝에 시드니 하아버어트 씨 부인에게 편지를 써 보냈읍니다.

몇 해 전처럼 하느님이 또 플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플로렌스, 중요한 일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플로는 자기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쿠타리에 있는 야전 병원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제 도저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읍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플로는 깨달았읍니다.

시드니 하아버트 장관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편지는 이리하여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고를 덜게 된 셈입니다.

일은 재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시드니 씨와 나이팅게일은 10월 16일에 만나 의논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19일에는, 육군성에서 정식으로 임명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파프는 오히려 크게 기뻐했으며, 동생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은 것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플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이 기회에 대비해서 한 것처럼만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육군성에서 발표된 원정 간호대 대장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이름이 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상류 사교계의 일부
사람들이나 병원에 관계하는 몇몇
사람 외에는, 플로렌스 나이
팅게일이란 이름을
아무도 몰랐
습니다.



‘나이팅게일이란 처음 듣는 이름인데, 대관절 어떤 사람일까?’

하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자, 신문은 다음과 같이 플로렌스를 소개했습니다.

「나이팅게일 양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자란 매우 훌륭한 젊은 여성이다.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이며, 또한 학식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이스 및 라틴의 고전은 물론이며 문학, 예술, 과학, 고등 수학 등에 통달해 있다. 외국어는 프랑스 어, 도이칠란트 어, 이탈리아 어를 영어와 마찬가지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유럽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나일 강 저 쪽까지 몇 번이나 여행을 해서 풍부한 견문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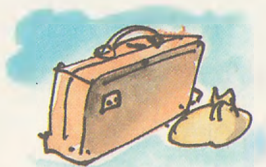
아름답고 부자이지만, 절대로 잘난 체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지니고 있다.」

신문은 플로렌스에 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고, 이 무렵의 여성으로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교양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여성이 사치스런 생활과 가정의 행복을 마다 하고, 영국 병사들을 위해 멀리 스쿠타리까지 가는가 하고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감격했습니다. 곧, 새가 병원의 침대에 앉아 있는 그림이 잡지에 실려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새는 바로 나이팅게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그 저그 저그 저그.”

나이팅게일의 울음 소리를 흉내낸, 나이팅게일의 <저그(항아리)>란 말도 유행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저그>에는 스쿠타리 병원에서 사용할 약이 들어 있을 거야.’ 라고들 하면서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스쿠타리에 가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0월 21일에 런던을 떠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육군성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지 겨우 이틀 후이므로, 몹시 바쁘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대장인 플로는, 먼저 자기 밑에서 일할 간호원들을 뽑아야 했습니다.



크림에 간호원으로 가겠다는 신청서가, 시드니 장관에게 이미 여러 통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한때의 기분으로 신청한 사람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저 쪽에 도착한 후에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간호원에 관한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직무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플로는 결국 38명을 뽑았습니다.

나이팅게일



간호원들이 탈 기차와 배의 좌석도 예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호원들의 제복을 정해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거나 병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므로, 옷차림이 검소해야 합니다. 스커터트의 길이가 긴 잿빛 옷에 흰 모자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물론, 여자가 전쟁터에 간다는 것은 영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플로는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척척 처리해 나갔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앞을 내다보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플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크림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훗날 영국의 남성들로 하여금 비록 여성이긴 하지만 남성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다시 보게 한 커다란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나이팅게일이 크림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스쿠타리로 떠나기 전에 지칠 줄 모르고 한 일들이
그 일의 시초입니다.

이리하여, 일행은 1854년 10월 21일 아침에 런던을
떠났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블로뉴로 건너가서 거기서
파리로 갔으며, 파리에서 마르세이유로, 이번에는 마
르세이유에서 배를 타고 터키로 갑니다.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러시아와 싸우고 있었으므로, 나이팅게일의 일행은 볼로뉴에서도, 파리에서도, 어디서나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간호원들 중에는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플로는 그런 사람들의 뒷바라지까지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나 마르세이유에서는 스쿠타리의 병원에서 쓸 물건을 많이 사야 했습니다.

플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해마다 500파운드씩 얻은 용돈도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금액이지만, 그 밖에도 아무쪼록 스쿠타리에서 써달라고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플로에게 맡긴 돈이 거의 7000파운드나 모였습니다.

플로는 여기서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하여, 10월 27일에 마르세이유 항을 떠난 배는 준비를 완전히 갖춘 나이팅게일과 간호원들을 싣고, 스쿠타리에 있는 영국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중해는 거칠었습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마구 흔들려 괴로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래도 11월 4일 아침, 일행은 보스포러스 해협에 면한 스쿠타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과 간호원들은 쉴 틈이 없었습니



다. 10월 28일에 벌어진 발라클라바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 때문에, 스쿠타리의 영국군 병원은 큰 혼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육지에 오르자, 병원까지 험한 비탈길이나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비탈길은 마치 쓰레기와 진흙탕의 바다 같았습니다. 간호원들은 저마다 작은 가방과 우산을 들고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이 진흙탕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스쿠타리의 영국군 병원에서는 나이팅게일과 간호원들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해 놓지 않고 있었읍니다.

병원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탑 속의 방들이 나이팅게일과 간호원들의 숙소로 할당되긴 했으나, 식사는 어디서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었읍니다.

그러나, 플로에게는 그런 자기들의 입장보다 환자들의 상태가 더 딱하고 걱정이 되었읍니다.



병실에는 침대가 없었습니다. 조금밖에 없는 담요와 시이트는 땀국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도 탁할 대로 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사람의 남자 위생병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늙은 위생병들은 원래 간호 지식이 없었고 게으름장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참혹할 지경이었습니다.



콜레라 환자도 보통 환자와 같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건강한 사람도 병이 옮겨 죽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플로와 간호원들이 처음으로 병실을 둘러보고 있는 동안에도, 발라클라바의 전쟁터에서 부상자가 계속 실려 왔습니다. 병원은 대번에 복도까지 환자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플로와 간호원들이 곧 일을 시작한 것은 말할 나위
도 없었습니다. 할 일은 얼마든지 있었읍니다.

간호원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처음으로
접한 부상병들은, 뜻밖에 영국
여자들에게 간호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읍
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 끝에 몸을 다치고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은 인정에 굽주려 있었읍니다.

그러나, 난처한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읍니다.

“이런 방에서 어떻게 자겠어요.”

“게다가 이 곳의 식사는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하며, 성을 내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간호원이 당장 생
겼읍니다. 그보다 더 난처한 것은,



‘여자 따위가 나
설 자리가 아냐.’
라는 낡은 생각을
가진 의사와 위생병
이 많은 점이었습니
다. 그런 사람들은
플로와 간호원들의
일을 일일이 방해했
습니다. 플로와 간호
원들이 실패하면 된
다. 그렇게 되면 군
대 병원은 그전처럼
남자들만의 병원이
된다. 그 편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
는 의사와 군인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영국 본국에서는 그토록 열광적으로 환송을 받고 떠
나온 나이팅게일과 간호원들이었으나, 스쿠타리에 있는
영국군 병원의 공기는 쌀쌀하고 심술궂기만 했습니다.

적의를 품은 남자들은 나이팅게일의 이름을 따서,
“저 바보 새!”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플로의 결심은 그런 일 때문에 꺾이지는 않
았습니다.





등불을 든 여자

런던을 떠날 때, 플로는 시드니 하아버트 육군 장관과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스쿠타리에 무엇을 가져가면 좋은지에 관해서도 의논을 했습니다. 영국군 병원에서는 틀림없이 물자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니 장관은, 스쿠타리에 여러 가지 물건을 충분히 보냈으니, 더 이상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쿠타리의 병원에 와 보니, 시드니 장관이 보냈다는 물자는 도착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잇달아 후송되어 오는 부상병들을 날라 올 들것도 모자랐습니



다. 그래서, 크림에서 배로 후송되어 온 부상병들을
할 수 없이 비탈길로 질질 끌어다가 병원에 데리고 오
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해도, 부상병의 치료에 쓸
소독약도, 바르는 약도 부족했습니다. 가아제도 부족했
습니다.

물론 침대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므로, 2000명 가까이 되는 부상병들은 거의가 마룻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병원인가 싶을 만큼 정말 형편 없는 상태였습니다.

플로는 만일을 위해 파리와 마르세이유에서 사 온 물건을 곧 꺼냈습니다. 역시 사 오기를 잘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들의 그릇마저 모자랐습니다.

나이프와 포오크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개처럼 고기를 물어뜯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기운이 있는 환자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먹을 수 있을 것입



니다. 하지만, 당장
죽어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플로가 조사해 보
니, 병원의 식사는
13개의 커다란 솥에
다 한꺼번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그마
치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식사입
니다. 솥 하나의 분
량이 백 수십 명 분
이 됩니다. 살펴보니
위쪽은 설익었고, 아
래쪽은 너무 물러
빠져서 뭉개져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식사 분배 또한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병실
에는 전혀 갖다 주지 않는 일도 흔히 있었습니다. 식사
를 갖다 주었다 하더라도 다 식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운수가 나쁘면 한 그릇씩 떠다 준 고깃국 속에 뼈다귀
밖에 없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중환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플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릇과 나이프와 포
오크, 스푼, 중환자를
위한 특별 식단을 준
비해야 하고, 여러 가
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심술궂은 병
원 사람들은 플로의
뜻대로 그런 것을 사
게 해주지 않았습니
다. 장관의 허락이 내
리기 전에는 그런 것
을 사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때, 플로가 가
져온 돈이 매우 도움
이 되었습니다. 플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아끼지 않고 샀
습니다.

그러므로, 나이팅게
일과 간호원들이 스쿠
타리에 도착한 지 열
흘이 지나지 않아서
환자들의 식사가 탄탄
으로 나아졌습니다.



요리를 잘 하는 간호원으로 하여금 특별한 수우프와 젤리 같은 식사를 만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심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가 그 다음에 개선한 것은 병원을 깨끗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터어키 군의 막사로 지은 집인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영국군의 병원으로 쓰이게 된 건물이므로, 건물 자체가 병원으로 쓰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건물 밑에 커다란 하수도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막혀 방마다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다 공기를 갈아 넣을 창문도 없습니다. 게다가, 벽은 먼지투성이인데다 더러운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곧 대청소를 해야겠다.”

플로는 곧, 솔과 비누를 준비해서 마룻바닥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일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입은 옷은 땀국이 흐르고, 이투성이입니다.

조금밖에 없는 시이트와 담요도 때가 끼고 피가 묻어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병원의 세탁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는가 싶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 세탁은 터어키 사람에게 시킨다고 했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세탁소를 하는 그 터어키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한 달 동안에 겨우 셔어츠 다섯 벌을 빨았다고 합니다. 2000명이나 되는 환자의 세탁이 이것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플로는 당장 새로 세탁장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환자들의 셔어츠를 세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셔어츠를 세탁하면, 병사들은 그 동안 알몸으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는 갈아 입을 셔어츠가 한 벌도 없었기 때문에, 플로는 두서너 달 동안에 자기 돈으로 셔어츠를 수만 벌이나 사야 했다고 합니다.

셔어츠뿐이 아닙니다. 양말, 바지, 옷, 옷, 빗, 비누 등 모든 뒤퉅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영국 군대를 위해 입을 옷을 구하는 등 뒤퉅다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는 런던에 있는 시드니 하아버트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플로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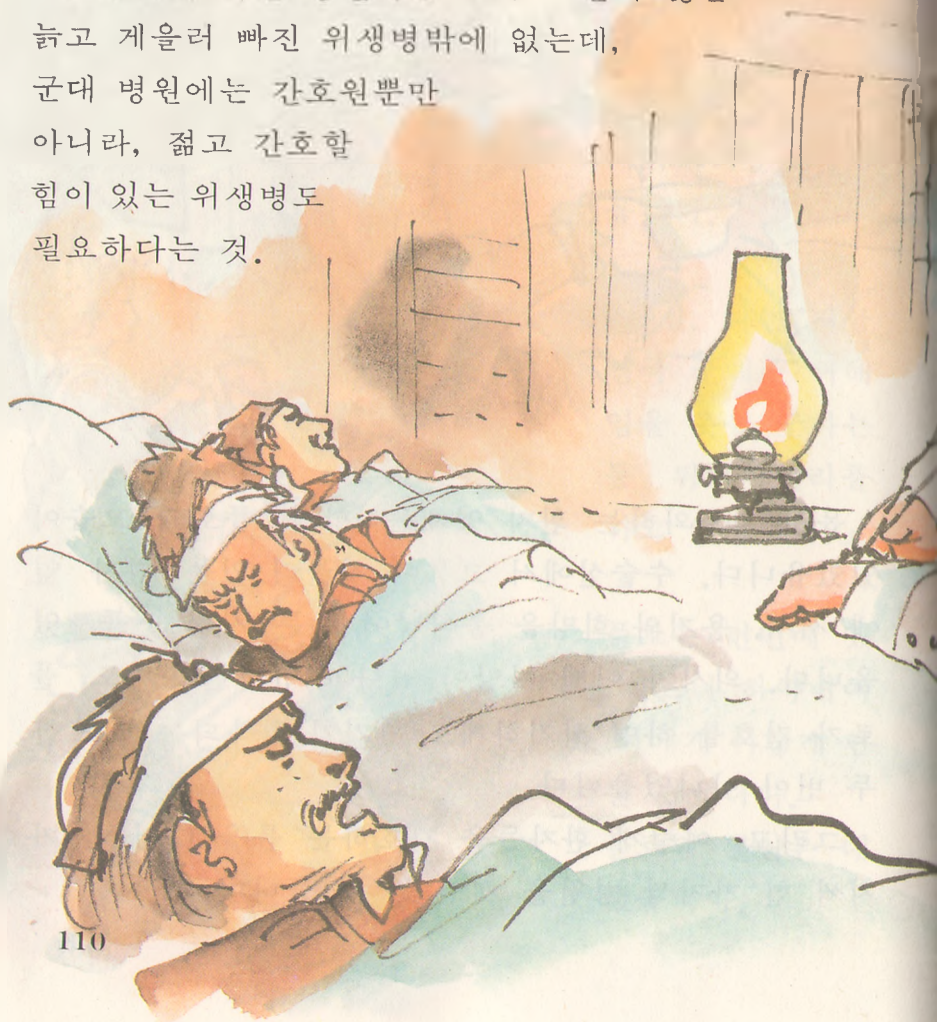
몹시 괴로와하는 환자 옆에는 항상 플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고통에 짓눌려 있는 환자 옆에 서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도 플로였습니다.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다고 단념한 환자도, 플로가 간호를 하면 신기하게도 원기가 회복되는 일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들을 간호하는 틈을 타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병원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서 사람들이 모두 잠들면, 플로는 탑 위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런던에 있는 시드니 육군 장관에게 매일 정해 놓고 꼬박꼬박 보고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가 병원 관리를 아무렇게나 하여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 갔는가 하는 것. 병원의 위생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스쿠타리 야전 병원에는 교육도 받지 않은
늙고 게을러 빠진 위생병밖에 없는데,
군대 병원에는 간호원뿐만
아니라, 젊고 간호할
힘이 있는 위생병도
필요하다는 것.





여러 가지 물품을 필요에 응하여 보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우선 예를 들면, 영국에서 보내오는 수많은 물품이 왜 스쿠타리의 병원에 도착하지 않는가? 그 까닭은, 그 물품이 터키 정부의 세관을 통관한 후 중간에서 어디론지 사라지기 때문인데, 이것을 막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위를 자세히 써서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다 쓴 다음에는 혼자서 조그만 램프를 손에 들고, 병실을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은 아득하게 잊닿아 있었습니다.

《타임즈》의 기자 맥드널드는, 그런 플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써서 영국에 보냈습니다.

「병원의 직원들이 모두 잠들고, 사방이 어둠과 고요에 싸여 있을 때, 지칠 대로 지쳐 누워 있는 환자들



사이를 등불을 들고 다만 혼자서 조용히 돌아보는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다. 몹시 괴로와하는 환자는 없는지,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응급 조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없는지 보살피는 나이팅게일의 그 모습은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 같았다.」

등불에 비치는 플로의 모습은 참으로 천사처럼 거룩했습니다.



크림 열병

1854년도 다 지나가 12월이 되고, 추위가 전쟁터에
엄습하자 맹렬한 전투는 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쿠타리의 병원에 후송되는 부상병의 수효도 줄어들
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수효는 더욱더 늘어 갈 따름이었음
니다.



부상병이 줄어든 대신에 이질, 괴혈병, 콜레라, 영양 실조, 동상 따위의 병이 크림 반도에 있는 영국군 사이에 맹렬한 기세로 마구 퍼져 나갔습니다.

영국 병사들은 크림 반도의 추운 겨울을 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영국에서도 보내오기로 되어 있는 각종 물품이 도중에서 폭풍우를 만나 배와 함께 가라앉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부러 지기도 했읍니다.

그러므로, 병원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충분치 못했으며, 나중에는 무기와 탄약마저 형편 없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말에게 먹일 꼴마저 떨어져서, 그 때문에 말이 잇달아 죽어 갔읍니다.

무서운 병마가 맹위를 떨쳤읍니다. 그리하여, 병에 걸린 병사들은 크림에서 응급 치료만 받고는, 200명씩 배에 실려서 스쿠타리의 병원으로 후송되어 오는 것이 었읍니다.

12월 17일부터 1월 3일까지 18일 동안에 4000명이나 되는 환자가 실려 왔다고 하면, 그 상태가 얼마나 굉장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로는 정말 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일에 몰려, 제대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니, 이따금 식사도 거르며 일을 한답니다. 저 일도 해야지, 이 일도 해야지 하며 너무 일을 많이 한답니다. 이러다가 병이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도 중병 환자가 200명이나 입원하였습니다. 모두들 병세가 몹시 나쁜 모양입니다.」

플로를 거들어 주기 위해 스쿠타리까지 함께 온 블레이크브리지 씨는 플로의 활약상을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자기 몸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다만 다쳐서 앓는 사람들을 위해 몸이 닳도록 일하는 아름답고 똑똑한 플로의 인품은, 처음에는 플로를 좋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의 마음을 차츰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께서 플로를 친히 칭찬하시는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플로의 마음은 감격으로 벅찼으며, 더욱더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고통스러운 겨울이 지나고, 봄날의 따듯한 햇살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플로와 간호원들이 스쿠타리의 영국군 병원에 도착한 지도 어느덧 반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병원은 몰라볼 만큼 깨끗해지고, 능률 있게 운영되어 나갔습니다. 플로와 간호원들이 갓 도착한 작년 11월에는, 100명의 환자가 입원하면, 그 가운데 거의 절반쯤 되는 사람이 죽어 갔습니다. 그렇던 것이, 반 년 후인 지금에 와서는 100명 가운데 98명까지 완쾌되었습니다. 플로의 성심과 노력, 그리고 그것을 살리는 철저한 간호 지식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았다. 그러나,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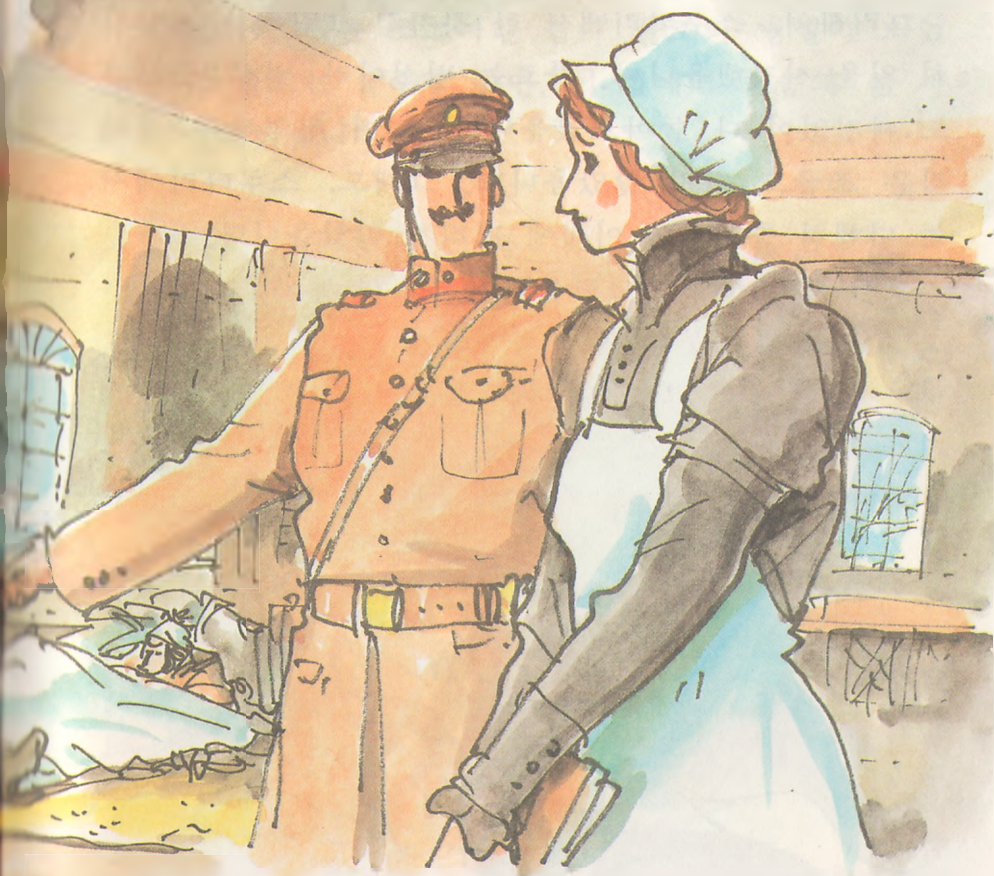
완쾌율이 좋은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스쿠타리의 병원 질서가 제대로 잡히자, 플로는 이번에는 크림 반도의 전쟁터에 있는 병원을 시찰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5월 5일, 크림의 발라클라바에 상륙한 플로 일행은 영국 병사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한 플로는, 즉시 크림에 있는 네 군데의 군대 병원을 차례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의 시찰은 아무 흥미도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도 더럽기 짝이 없었으며, 병원의 운영 상태는 엉망이고, 간호원이 있긴 했지만, 간호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게을러 빠져서 제대로 일도 하지 않았읍니다.

플로는 곧, 스쿠타리의 영국군 병원에서 한 것과 같은 개선을, 크림에서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쿠타리에서 한 것처럼 크림에서도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플로는 병실이란 병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보았습니다. 병이 전염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쿠타리에서는 다행히 콜레라나 이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반 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몹시 쇠약해진 탓인지, 무서운 크림 열병에 걸려 몸져 누고 말았습니다.



“이젠 가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한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마한 집이 플로의 병실이 되었습니다. 플로는 2주일 동안, 이 집에서 죽음과 삶 사이를 방황했습니다.



한편, 플로가 크림 열병에 걸려 쓰러진 사실이, 어떻게 된 셈인지, 플로가 크림 열병으로 죽었다고 발라클라바와 스쿠타리에 잘못 전해졌습니다.

병사들의 마음은 가슴을 에이는 듯 아팠습니다. 모두들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거룩한 크림의 천사가 벌써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가 하며 슬퍼했습니다.



본국 런던에도 역시 플로가 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런던의 신문들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죽음을 영국의 크나큰 손실이라고 하며 슬퍼했으며, 플로가 지금까지 쌓은 공적을 최대의 찬사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플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물론, 몸은 매우 쇠약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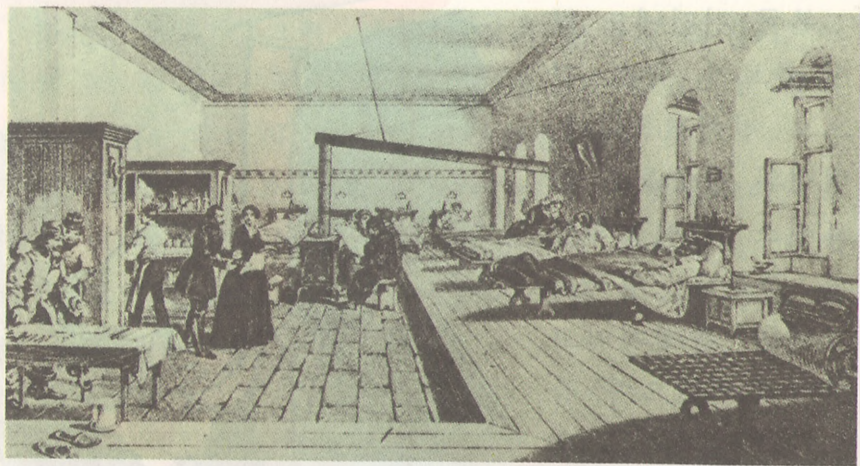
일어날 수 있게 되자, 그래도 크림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플로에게, 이제는 영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졌으므로 영국에 돌아가서 요양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로에게는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영국에 돌아





나이팅게일이 봉사했던 스쿠타리 야전 병원

가는 것은 영국군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고 난 뒤 일 것이다.’

플로는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는,
영국이 아닌 스쿠타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플로의 병이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을 알고, 사람들은 모두들 다행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함과 동시에 새삼스레 플로의 마음씨, 자기의 몸은 돌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쟁터에 남아서 불쌍한 환자들을 위하여 한 몸을 바치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씨에, 사람들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스쿠타리여,
잘 있거라 !

1 년 남짓 끈 크림 전쟁도, 1855 년 9 월에 연합군이 세바스토폴을 공격함으로써 끝났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군이 크림 반도에서 후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연합국과 러시아가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이듬해 3 월이었는데, 그래도 세바스토폴의 전투 때 부상을 입은 병



사들의 치료를 고비로 하여 스쿠타리의 병원도 차츰 한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세바스토폴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런던에 전해졌을
때, 런던 시민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이로써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
랑스 연합군이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기
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거룩한 희생자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림 전쟁에서 사망한 영국 병사들의 수효는 대략 20,000명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약 16,000명이 병으로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새삼스레 나이팅게일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 간호의 힘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나이팅게일이 스쿠타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또 스쿠타리의 영국군 병원이 플로에 의해 개선되지 않았



더라면 희생자는 더욱더 많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국에서는 거국적으로 나이팅게일에게 감사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55년 11월에는 그 일 때문에 런던에서 회합이 열렸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영국을 위해 봉사한 충성에 대해, 영국 국민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떤 형태로 나타내면 좋을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시드니 하아버트 씨를 비롯하여 플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플로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플로가 가장
바라고 있는 일, 즉
헌신적이며 유능한
간호원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기로 결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간호 학
교를 세우기 위해서
나이팅게일 기금을
모집하게 되었습니
다. 스쿠타리의 병
원에서 플로 덕분에
아들의 목숨을 건진
부모들, 남편의 목
숨을 구한 아내들...,
이런 사람들이 정성
어린 돈을 자꾸만
보내 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따뜻한 감사의 편지와 함께 다이아
몬드로 된 브로우치를 보내왔습니다.

「피비린내나는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 교도로서 자기 몸을 바쳐, 남을 위해
희생한 데 대하여 내가 얼마나 고마와하고 있는지 당
신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운 영국 병사들의 거룩한 공로에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부상을 입거나 병들어 쓰러진 장병들을 그토록 따뜻이 위로하고 간호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한 것은 오로지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브로우치에는, ‘크림’이라는 글자와 ‘자비로운 자에게 축복이 있으라.’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수많은 병사들에게 바친 헌신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로 빅토리아 여왕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게 보내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플로의 사진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플로의 전기도 판매되었습니다.

딸을 낳으면 플로렌스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부모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는 이제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로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인기가 오르는 것도, 신문에
이름이 나는 것도, 명예 있는 보석을 주는 것도 그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내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아직도 크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국 병사가 이 크림 반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나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굳게 다짐한 플로는 얼마 전에, 그 무서운 크림 열병에 걸리는 바람에 못 하고 만 크림에

있는 야전 병원을 개선하는 일에

힘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되자 크림을

여러 번 방문

했습니다.



아니, 병원을 개선하는 일뿐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전쟁터에 머물러 있는 영국 병사들을 위해 독서실을 마련하기도 하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병사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코오피를 마시며 설수 있는 다방도 마련했습니다. 병사들이 술을 마시며; 그리스도 교도답지 않게 날을 보내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로의

임무가 이제야

겨우 끝났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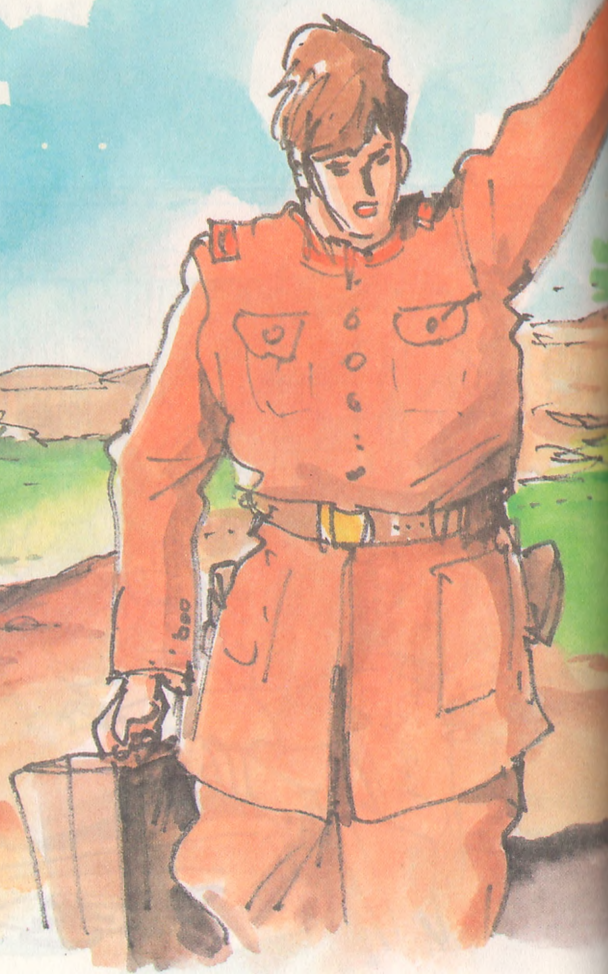
드디어 돌아옵니다. 영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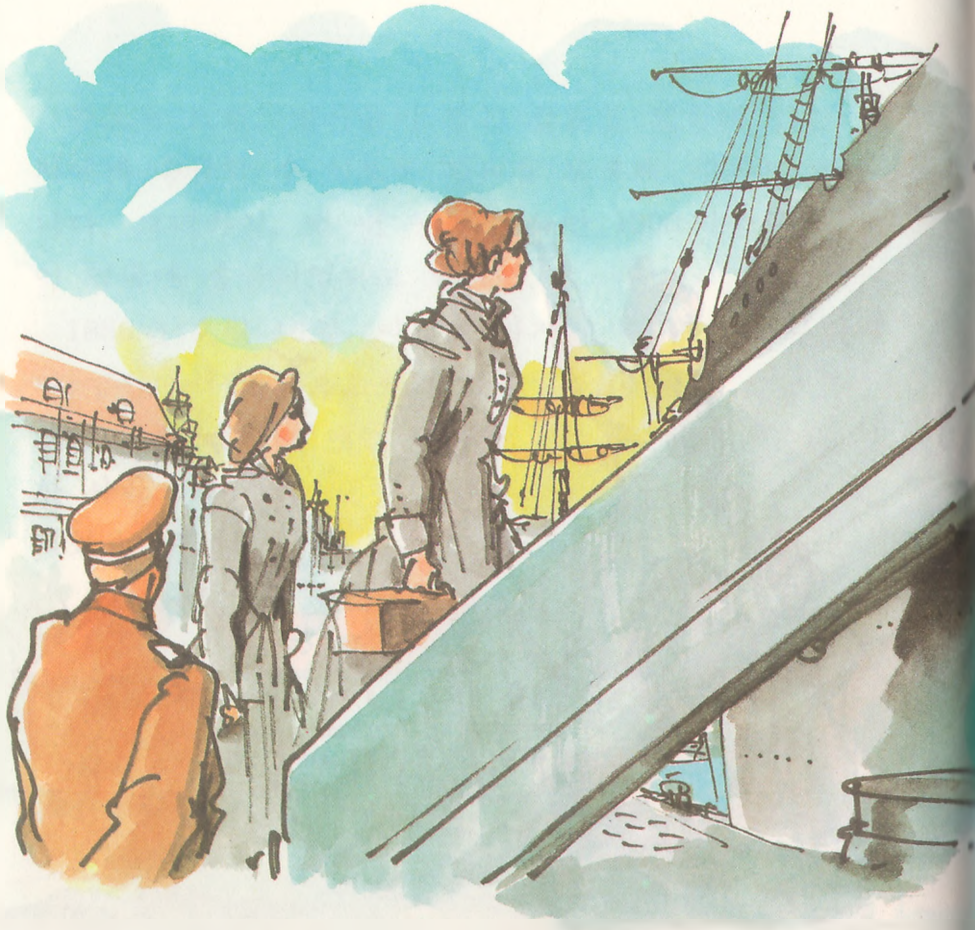
온통 들끓었습니다. 크림 전쟁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의 영웅이라고 해서, 정부는 플로를 태워 오기 위해 군함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선문과 악대, 그리고 기념 행진 준비에 대해서도 야단스럽게 의논들을 했습니다.

플로는 또한, 병사들이 받는 급료를 영국에 있는 처자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반 년 동안에 7 만 1000 파운드의 돈이 영국에 송금되었다고 합니다.

1856년 7월 16일, 마침내 마지막 환자가 스쿠타리의 병원에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젠 크림이나 스쿠타리에는 환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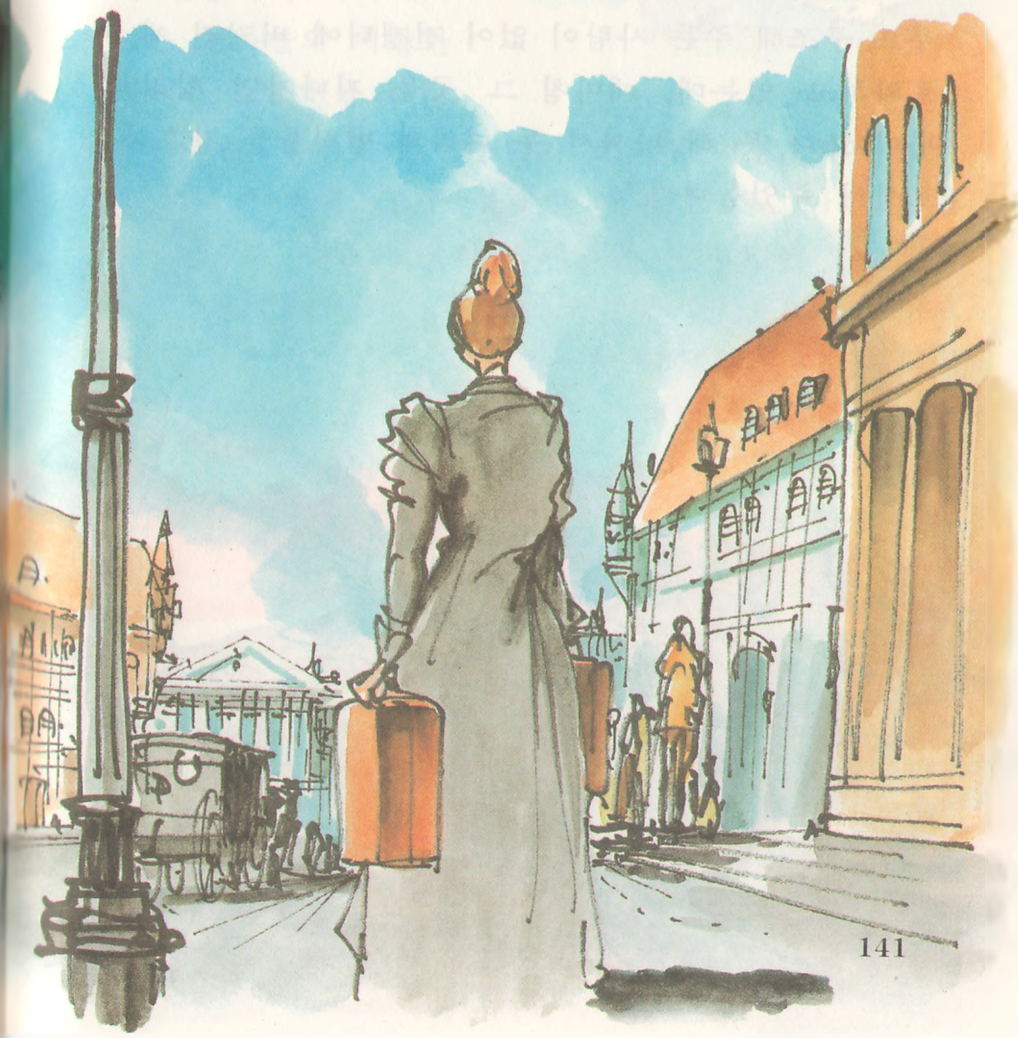
그러나, 플로는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크림의 언덕에 묻혀 있는 수많은 병사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이대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마음이 아팠습니다.

7월 28일, 플로는 블레이스브리지 씨 대신에 작년부터 스쿠타리에 와서 도와 준 메이 아주머니와 함께 남몰래 귀국선을 탔습니다. 스미드라는 가명으로 배를 탄 두 사람을, 나이팅게일과 메이 아주머니인 줄 눈치 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르세이유에서 파리

로 나가, 파리에서 메이 아주머니와 헤어져서 혼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여름날 해질녘의 일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부인 한 사람이 정거장에서 나와, 리이 허어스트로 가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 일을 훌륭히 해내고 돌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안타까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적십자와

나이팅게일 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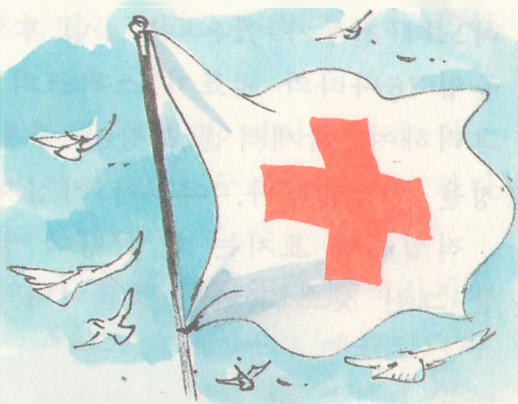
적십자라는 것은 스위스의 앙리 뒤낭이 처음으로 시작한 조직입니다.

1859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군대가 솔페리노라는 곳에서 싸웠습니다. 그 때,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아무도 구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전쟁터에 버려진 채 괴로와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앙리 뒤낭이 보다 못 해 나서서 두 나라의 병사들을 간호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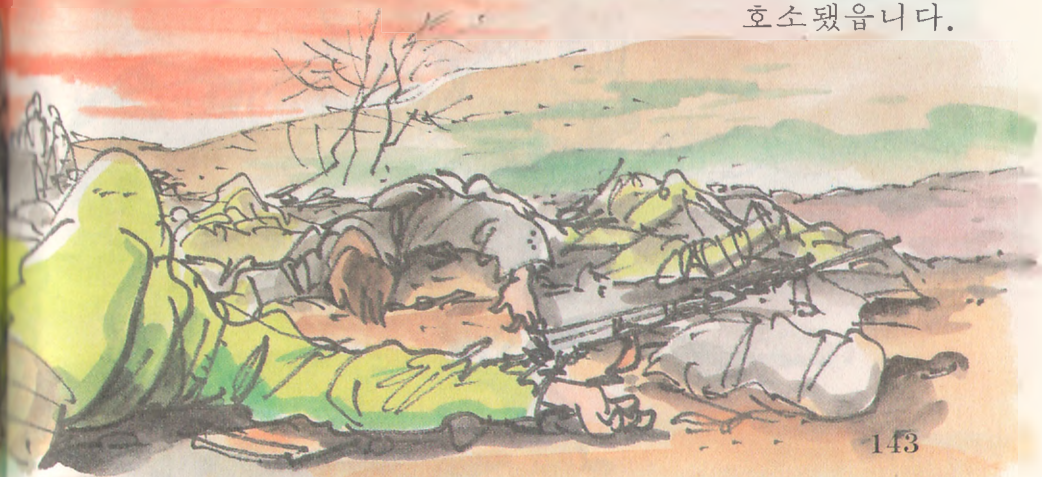


앙리 뒤낭은 그 때
의 일을 《솔페리노의
추억》이라는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아무
도 구조해 주는 사람
도 없이 부상을 입은
채 전쟁터에 내버려져
있는 병사들의 비참한
상태를 호소했습니다.



뒤낭은, 훌륭하게 싸우다가 쓰러진 이상, 적과 아군
을 따지기 전에, 모두 불쌍한 사람이므로, 이런 사람
들은 전쟁의 승패와는 관계 없이 민간인의
손으로 구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뒤낭이
펴낸 이 책은 사람들
의 마음에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크림 전쟁이 벌어진 지 꼭 10년 후가 되고, 솔페리노의 전투가 있던 지 4년 후가 되는 1863년 가을에, 유럽 16나라의 대표가 스위스의 제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부상자 구원 조직을 만들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적십자의 시초입니다.

적십자의 표지는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열십(十)자를 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가 있는 곳은, 어느 쪽 군대도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적십자 마아크가 있는 배도 물론 공격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적십자 운동은 부상한 병사들이면 적군이고 아군이고 간에 구별하지 않고 구해 주어야 한다는 인도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적십자 조직은 해마다 자꾸 커졌습니다. 적십자에 가맹하는 나라가 늘어 갔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적십자는, 전쟁이 없는
보통 때에도 불쌍한 사람
들을 위해 활동하게
까지 되었
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적십자 병원은 이렇게 하여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앙리 뒤낭은 적십자 조직을 만든 일 때문에, 그 후 제 1 회 노벨상(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낭이 벌인 이 일은 나이팅게일이 하는 일과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뒤낭은

“내가 벌인 일은 모두 어느 영국 부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국 부인은 다름 아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크림 반도에서 활약한 일이 앙리 뒤낭을 감동시켜, 그 결과 뒤낭이 솔페리노에서 활약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림에서 돌아온 나이팅게일은, 그 후부터는 세상에서 숨어 사는 사람처럼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크림에서 열병을 앓고 난 뒤 건강을 많이 해쳤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나이팅게일은 화려한 것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읍니다.

이 무렵, 나이팅게일은 영국 육군 병원에 관한 것과, 환자의 간호 방법 등에 관한 책을 몇 권 써냈습니다.

이 책들로 말미암아, 그 후 병원의 상태와 간호 방법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플로가 크림에 가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한 돈으로 마련된 나이팅게일 기금을 바탕으로 하여, 그 후 간호 학교도 세워졌습니다.

플로의 생각을 받아들인 이 학교는, 마치 <크림의 천사>처럼 환자에 대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풍부한 간호 지식과 기술을 몸에 지닌 새로운 간호원을 세상에 많이 내보냈습니다.

크림 전쟁이 있은 후부터는 영국뿐만 아니라 온 유럽, 아니 온 세계 사람들이 여성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도 학문을 닦을 수 있다.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해 세



상 사람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증거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어느 영국 남성도 못한 일을
훌륭히 해내지 않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윽고, 대학은 여성에게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성도 정치에 관하여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지금은 수치도 아무것도 아니며 당연한 일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사치스런 생활과 가정의 행복을 모두 떨쳐 버리고 크림의 병원으로 갔을 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플로렌스의 거룩한 마음에 감동되어, 딸을 낳으면 플로렌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아졌다 는 이야기는 앞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일은 플로렌스를 본받아 불쌍한 환자나 몸을 다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



려고, 간호원이 되려는 사람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은 생각지도 않고 환자들에게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저 친절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이치에 맞는 간호를 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속히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원을 보셨지요?
깨끗한 흰 옷을 입고, 흰 모자를 쓰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저 수많은 간호원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나이팅
게일 기장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팅게일 기장이란, 1910년 8월 13일에 세상을
떠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국
제 적십자사가 마련한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 기장은,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뽑힌
훌륭한 간호원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역사를 바꾼

크림의 천사

이 영 재

〈아동 문학가〉

앙드레 모르와는 그의 저서 《영국사》에서, 크림 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크림 전쟁은 전혀 뜻밖이며, 게다가 간접적인 결과를 영국의 장래에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여성의 참정권 문제였다. 크림 전쟁 때, 영국의 야전 병원 위생 시설들이 매우 낮은 능률을 보이고 있을 때, 이것을 다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준 사람은 다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성뿐이었는데, 이 사실은 여성의 교육 문제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이리하여, 여성 참정권 운동의 바탕을 간접적으로 닦은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성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따위 말을 나이팅게일은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크림 전쟁 때 나이팅게일이 보여 준 실적이 남자들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 사실이 그 후 영국에 있어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간접적으로 커다란 힘이 되었다는 아주 독특한 견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팅게일에 대하여 생각할 때, 흔히 사랑의 천사라고 하며, 헌신적이며 친절하게 간호한 일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 일만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병원 운영, 간호원의 지위 향상 등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합리적인, 어떤 의미로는 남성적이기도 했던 나이팅게일의 사고 방식은 어디서 길러진 것이었을까요? 역시 나이팅게일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받은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이스, 라틴의 고전에서부터 고등 수학에 이르기까지 나이팅게일의 교양은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파격적이었는데, 그 교양이 나이팅게일의 남달리 뛰어난 통찰력을 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팅게일이 성공한 데는 다분히 행운이 있었읍니다. 예를 들면, 만일 나이팅게일이 로마에서 하아버어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정도 세울 수 있고, 또한 나이팅게일이 영국의 상류 사회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상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가정입니다.

확실히, 나이팅게일이 상류 계급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깊고 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상류 계급 출신이기 때문에, 시드니 하아버어트 같은 명사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림의 야전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한 것 자체도, 나이팅게일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계급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영국 국민의 눈에 한층 빛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운을 살려 크림에서 병사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병원의 개혁이나 또 간호법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실적은 확실히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힘이었읍니다. 높은 교양과 성실한 생활 태도, 그리고 무욕(無慾) 등 미덕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크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환자를 영국으로 송환하고 난 뒤, 영국 정부가 제의한 환영을 모두 거절하고, 플로렌스는 남 몰래 혼자서 리이 허어스트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플로렌스는 왜 남 몰래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이것은 플로렌스가 왜 크림에 갔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으로는 당연히 그리스도 교도로서의 나이팅게일의 특수한 사명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공헌한 커다란 힘이 이와 같은 인간의 성실과 무욕과 근면에 연유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고도의 문명을 즐기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된 병원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직업에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그저 간단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선인(先人)들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환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적인 봉사를 하여,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은 분이 우리 나라에도 여러 사람 있는데, 이런 분이 앞으로 자꾸자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간호원들이 서부 도이칠란트,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나이팅게일의 박애정신을 발휘하여 한국 간호원의 실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연 표

연대	나이	나이팅게일의 생애와 업적	
1820		5월 12일,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시에서 출생.	
1821	1	부모와 언니 파세노프, 이렇게 네 식구가 영국 리버허스트로 돌아옴.	
1825	5	햄프셔로 이사.	
1827	7	크리스티 선생이 가정 교사로 옴. 언니와 함께 그 리이스, 로마의 고전과 도 이칠란트 어, 이탈리아 어 등을 배움.	
1837	17	‘중요한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을 일기에 적음.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남.	
1838	18	이탈리아에 감. 여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이탈리아의 애국자인 시스몬디를 알게 됨.	
1839	19	4월, 유럽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 돌아옴.	
1845	25	소울즈버리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 공부를 하려 했으나 가족들이 반대.	

연대	나이	나이팅게일의 생애와 업적	
1847	27	10월, 블레이크브리지 부부와 로마 여행. 하아버어트 부부를 로마에서 알게 되었으며, 간호 사업에 대한 찬동을 얻음.	
1849	29	블레이크브리지 부부와 이집트, 그리스 여행.	
1854	34	10월 14일, 《더 타임즈》에 크림 전선에서 부상한 병사들을 간호할 여성을 구하는 기사가 실림. 플로렌스, 크림에 갈 것을 결심. 10월 19일, 원정 간호원대 대장으로 정식 임명됨. 10월 21일, 런던 출발. 11월 4일, 스쿠타리의 영국군 병원에 도착.	
1855	35	5월 5일, 발라클라바에 있는 네 개의 야전 병원 시찰. 크림 열병에 걸림. 병이 나아 스쿠타리에 돌아옴. 11월, 영국에 나이팅게일 기금이 설치됨. 12월, 빅토리아 여왕이 플로렌스의 공적을 찬양하고, 다이아몬드 브로우치를 보냄.	 

연대	나이	나이팅게일의 생애와 업적	
1856	36	7월 16일에 스쿠타리에 있는 야전 병원을 폐쇄. 메이 아주머니와 함께 스미드라는 가명으로 귀국하게 됨. 8월, 리이 허어스트에 돌아옴. 11월, 런던의 바알링턴 호텔에 정착.	
1858	38	이후, 1859년까지 《영국 군대의 건강, 능률 및 병원에 관한 각서》 《간호에 관한 각서》 등 저서를 출판. 이들 저서는 합리적인 병원 운영이나 간호법 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	
1861	41	시드니 하아버어트 사망. 리이 허어스트에 돌아감.	
1883	63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로열 적십자장을 받음.	
1907	87	만국 적십자사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대훈위장 받음.	
1910	90	8월 13일, 런던에서 사망. 나이팅게일 기장 설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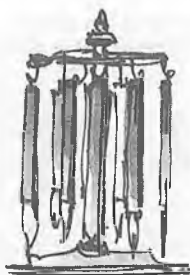
학습 역사 인명 사전

감 수/심 경석(아동문학가·서울 서초국민학교 교장)
 <무순> 김 종상(아동문학가·서울 유석국민학교 교사)
 도 재희(아동문학가·서울 광장국민학교 교사)
 김 일환(아동문학가·서울 당곡국민학교 교사)
 최 영재(아동문학가·서울 신월국민학교 교사)

● 양 사언	162
● 양 성지	165
● 양 자	168
● 양 제	170
● 어 유소	172
● 언더우드	177
● 에드워드 3 세	179
● 에디슨	181
● 에머슨	183
● 에 펠	188
● 연 개소문	191
● 염 상섭	196
● 영류왕	203

● 이 <학습 역사 인명 사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 공부나 전기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역사 공부에 나오는 인물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큰 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므로 이 사전은 이런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楊 士 彦
양 사 언 (1517~1584)

—조선 4대 명필의
한 사람—

양 사언은 조선 시대의 명필이다.

그의 자는 응빙(應聘)이고, 호는 봉래(蓬萊) 또는 완구(完邱)라 했으며, 초서(草書)와 큰 글씨를 잘 써서 안평대군(安平大君), 김 구(金絿), 한 호(韓濩)와 더불어 조선 시대의 4대 명필이라 불린다.

양 사언은 돈령부 주부(敦寧府主簿)를 지낸 양 회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집의 세 아들이 모두 재주가 뛰어났다고 한다.



그는 1546년(명종 1)에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함으로써 대동승(大同丞)이 되었다가, 삼등(三登)에서 현감을 지낸 후 평창(平昌) 군수를 거쳐, 강릉(江陵) 부사, 함흥(咸興) 부윤, 회양(淮陽) 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 관직에만 있었던 것은 그가 본래 자연 경관을 즐기는 성격이었으므로 스스로 지방 관직을 원했기 때문이다.

회양 군수로 있을 때는 특히 금강산을 좋아하여, 일하는 틈틈이 금강산에 들어가 세상을 초월한 듯한 풍모로 대자연의 즐거움을 즐겼고, 아름다운 경치에 스스로 취하여 만폭동(萬瀑洞) 바위에 <봉래 풍악 원화동천(蓬萊楓嶽元化洞天)>이라는 여덟 글자를 새겨 놓았다 한다.

그 후, 안변(安邊) 군수로 옮겨 가서는 커다란 못을 파고 마초(馬草)를 저장하였는데, 북쪽에 변란이 일어나서 많은 군사가 북송될 때, 다른 고을에서는 마초가 부족하여 관리가 책임 추궁을 당하였으나 안변만은 마초가 남아 돌아, 그는 조정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통정大夫(通政大夫)의 관계(官階)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지릉(智陵)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책임을 지고 해서(海西)에 귀양갔다가, 2년 후 귀양이 풀려 돌아오는 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양 사언은 본래 머리가 좋은데다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읽지 않은 책이 단 한 권도 없을 정도였으며, 매우 청렴하여 여덟 고을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로 있는 동안 한 푼의 부정도 없었을 뿐더러, 생전에 따로 축재해 놓은 재물이 하나도 없었다 한다.

그의 글씨가 훌륭했던 것은 물론이지만, 시를 짓는 솜씨

도 완전 무결하여 흠이 없고 기발하였다. 그의 작품으로 아래의 시조는 오늘날에도 유명하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흔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뒤흔다 하더라.

이 밖에도 일찌기 그는 금강산을 드나들면서 《금강산 유람기》를 쓴 일이 있다.





梁 誠 之
양 성 지 (1415~1482)

—조선 초기의 학자—

양 성지는 조선 초기의 학자로서, 자는 순부(純夫), 호는 눌재(訥齋),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그는 26세 되는 해인 1441년(세종 23)에 진사(進士), 생원(生員) 양시(兩試)에 합격했으며, 이어서 실시된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경창부승(慶昌府丞)과 성균관 주부(成均館主簿)를 역임하였다.

그 후, 양 성지는 집현전에 들어가 부수찬(副修撰), 교리(校理) 등을 지내게 되었는데, 문장을 다루는 솜씨가 능숙하여 세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과 고려사 수사관(高麗史修史官)을 지내는 동안, 《고려사》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작업에 참여하여 성심껏 일을 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집현전 직제학에 승진하였다.

그 후 1453년(단종 1)에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조선도(朝鮮都圖)》와 《팔도각도(八道各圖)》를 작성했으며, 다음 해에는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지어 임금께 바쳤다.

그 무렵, 수양 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단종 복위를 꾀하기 위하여 성 삼문 등 뜻있는 선비들이 일어났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이 때, 양 성지는 사육신의 참변을 목격하고 벼슬을 버리려 했으나, 세조가 극구 만류하므로 하는 수 없이 다시

조정에 나아가,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라는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조정에 나아가게 된 그는 1463년(세조 8) 임금의 명을 받들어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작성했으며, 홍문관(弘文館)의 설치를 건의하여 허락을 얻음으로써 제학(提學)에 취임하여 궁중의 모든 경서와 문서, 그리고 역대 서적들을 체계별로 정리 보관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조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하는 구현시(求賢試)에 응시하여 급제함으로써 이조 판서에 오르게 되었고, 그 후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오륜록(五倫錄)》을 지어 임금께 바쳤다.

이듬해, 조정에서는 다시 발영시(拔英試)를 실시했는데, 양 성지는 이 때에도 또 급제하여 실력을 발휘하였고, 이 해에 서적의 보전과 간행에 관하여 10개조로 이루어진 상소문을 올려, 학문의 발전을 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하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홍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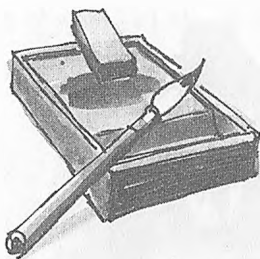


관 제학,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등 세 가지의 직책을 겸임하게 된 양 성지는 《세조 실록(世祖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예종이 병으로 죽고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예종실록(睿宗實錄)》을 편찬하는 데 참여했다가 공조판서에 오르게 되었으며, 1471년(성종 2)에는 좌리 공신(佐理功臣) 3등으로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그 후에도 양 성지는 여러 벼슬을 역임하다가, 1481년에는 홍문관 대제학이 되어 《여지승람(輿地勝覽)》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이 해 문신 정시(文臣庭試)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합격함으로써 다시 한 번 문재(文才)를 드날리게 되었다.

1482년, 양 성지는 다시 서적의 인간(印刊)과 수집 보관에 관한 12개조의 건의문을 올렸는데, 이 해가 바로 그가 세상을 떠난 해이다.

학문 발전과 서적 간행에 평생을 바친 양 성지는 67세로 눈을 감았다.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楊
양

子
자

(기원전 395 ? ~ 335 ?)

—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 —

양자(楊子)는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이다. 전국 시대란, 중국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제(齊), 초(楚), 진(秦), 연(燕), 한(韓), 위(魏), 조(趙) 등 각 지방의 제후들이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하여 다투던 어지러운 때를 말한다.

양자의 본명은 양 주(楊朱)라고 하며, 인간의 본질만을 추구하는 유가(儒家)의 입장을 비판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보다 중점을 둔, 말하자면 중국에 있어서의 실존주의 사상가이다. 그는 노자(老子), 장자(莊子) 등의 사상과 더불어 도가(道家)의 기초를 세웠다.

당시는 제자 백가(諸子百家)라 하여 여러 학자들이 저마다 저서를 남겼으나, 양자는 저서를 남기지 않았다. 다만, 다른 사람의 저서 속에 그의 사상이 소개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 장자보다 오히려 그 시대에는 더 유명했던 양자도 후세에는 잊혀지게 되었다.

천하의 학설은 양자의 학설이 아니면 묵자(墨子)의 학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는 양자와 묵자의 사상이 크게 성행했다고 한다.

맹자는 이 두 사람을 비난하여 평가하기를, 양자의 <나 때문에 한다>는 학설은 군주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묵자의 <차별 없는 사랑>은 가장 사랑하여야 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군주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정신이 없는 동물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양자의 <나 때문에 한다>는 말에는 매우 어려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보통 나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기주의로 해석이 되지만, 그의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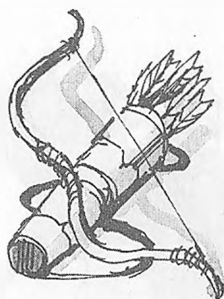


유가에서는 사회적인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생각했지만, 양자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에 의문을 품은 것이다. 사회적인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나 때문에 한다>의 참다운 의미이다.

전국 시대는 정치적 혼란기로 학자들은 저마다의 생활을 하였다. 묵자 일파가 자급 자족의 생활을 한 것이나, 양자 일파가 자유로운 토론을 한 것이나, 또 노자가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산 것이나 모두 자기 뜻대로 산 방법이었다.

양자의 사상은 후에 노자, 장자의 사상과 통합되어 도가의 사상 속에 다시 등장하였다. 이것은 그의 학설이 정치와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양자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공자보다는 늦고 맹자보다는 일찍 태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楊
양

帝
제

(569~618)

— 수나라 제 2 대 황제 —

양제(楊帝)는 중국 수(隋)나라의 제 2 대 황제인데, 아버지 문제(文帝), 즉 양 견(楊堅)을 죽이고 제위에 올랐다고 한다. 양제의 이름은 양 광(楊廣)이다.

양제는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폭군이며, 왕조를 멸망시킨 군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수나라 다음의 당(唐)나라가 당조(唐朝)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양제를 과장해서 나쁘게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535년, 위(魏)나라가 동서로 분열되어 동위, 서위로 나누어지자, 두 나라는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모든 실권은 군사적 세력을 갖고 있는 대신들 손에 있었다.

창안(長安)을 중심으로 한 서위의 재상 우 문태(宇文泰)는 군인 출신이었으며, 항상 동위를 치려고 노리고 있었다. 서위는 동위보다 영토가 좁고, 인구도 적었으며, 물자도 귀했으나, 우 문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었다.

우 문태의 아들이 결국 서위를 굴복시키고 북주(北周) 왕조를 세웠으나, 곧 북제(北齊)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3대 무왕(武王) 때에 북제를 물리치고 화북 일대를 통일하게 되었다.

무왕, 선제(宣帝), 정제(靜帝)로 내려오는 동안, 외척(外戚 : 왕의 외가 쪽 친척) 출신인 양 견이 세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다가 양 건은 정제를 폐하고 스스로 제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바로 수나라의 문제이며, 양제의 아버지이다.

남조(南朝) 진(陳)나라가 망하는 틈을 타서 문제는 오랫동안 남북으로 갈렸던 중국 천하를 통일하였다. 이 때 군대를 총지휘했던 문제의 둘째아들 양 광은 차츰 명성이 높아지자 형인 황태자 양 용(楊勇)과 세력 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때 황후의 세력이 아주 컸는데, 황후는 둘째아들 양 광을 더 사랑하였다. 양 광은 어머니의 배경을 믿고 조정의 대신 양 소(楊素)와 결탁하여, 황태자를 폐하게 하고 자기가 황태자 자리에 올랐으며 문제가 사망하자, 곧 즉위하여 양제가 되었다. 그러자, 막내 동생인 양 양(楊諒)이 군사를 일으켜 반항했지만 바로 토벌되었다.

대개 폭군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커다란 토목 공사 등을 일으키곤 하는데, 양제도 5대 하천에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교통이 편리해진 것은 좋은 일이었으나 국가 재정과 백성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양제는 또 도시끼리의 무역과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나라와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고구려에도 여러 번 사자를 보내어 조공을 바치라고 하였으나, 그 때 마다 고구려는 거절하였다. 양제는 고구려를 치기 위하여 모두 3번이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갔으나,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에게 무참하게 패하고 말았다.

무리한 고구려 원정 때문에 나라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으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은 점점 커졌으므로, 양제는 하는 수 없이 양주(楊州) 별궁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살해되었다.



魚 有 沼
어 유 소 (1434~1489)

— 조선 초기의 무관 —

조선 시대에는 무인(武人)이면서도 글을 잘 하는 사람이 많았다. 어 유소가 바로 그런 무인 중의 한 사람이다.

어 유소는 성품이 너그로우면서도 매우 치밀하여, 무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학자의 기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일단 전투에 임하면 판단이 정확하고 용감 무쌍하여,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 유소는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서, 자는 자유(子游),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그는 1451년 17세 때, 궁내(宮內) 경비를 맡아 보는 부대인 내금위(內禁衛)에 보직된 것을 계기로 관직에 나아가기 시작하였으며, 1456년(세조 2)에는 무과(武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복시 직장(司僕寺直長)이 되었다.

그 후 1460년, 야인(野人)의 무리가 북변을 자주 공격하자, 야인 정벌 부대에 소속되어 공을 세움으로써 통례문 통

찬(通禮門通贊)이 되었고, 1463년에는 회령 부사(會寧府使)가 되어 북변의 군사 행정을 맡아 보았다.

어 유소가 북변의 부사로 임명되어 간 것은, 그가 무예가 출중한데다 성품이 부드러워 야인의 무리를 무마하는데 적격자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임금 세조가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도 출신의 수령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서울의 관리를 북변으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467년, 세조의 그러한 정책에 불만을 품은 길주(吉州)



의 호족(豪族) 이 시애(李施愛)가 지방의 세력을 배경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 시애의 반란은 즉각적으로 북도의 여러 군의 호응을 받아, 북도의 민심이 크게 동요되는 가운데 급속하게 확대되어 갔다.

이에 세조는 크게 노하여, 종실인 구성군(龜城君) 준(浚)을 함경, 평안, 강원, 황해 4도의 병마 도총사(兵馬都摠使)로 삼아 반란을 진압토록 하였다.

이 때, 어 유소는 좌대장(左大將)으로 토벌군에 참가하여 난을 평정함으로써 적개 공신(敵愾功臣) 1등으로 예성군에 봉해졌으며, 공조 판서에 특진되어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해 겨울, 명나라가 건주위(建州衛)를 치게 되어 조선에 출병을 요청하였다. 이 때도 어 유소는 좌대장으로 출전하여, 야인들을 쳐부수는 등 크게 공을 세워 명



나라 황제로부터 상품을 하사받았다. 그리하여, 그의 용맹은 명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후부터 야인들은 북면 국경으로 침범해 오다가, 어 유소라고 쓴 깃발만 보고도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났다 한다.

이후로 어 유소는 벼슬이 나날이 높아져 함경 북도 절도사가 되었다가 1471년(성종 2) 좌리 공신(佐理功臣) 4 등이 되었으며, 이어서 1476년에는 우참찬(右參贊)이 되어 도총관(都摠管)을 겸임했고, 이듬해 병조 판서를 거쳐 1478년 우찬성(右贊成)이 되었다.

1479년, 명나라에서는 다시 건주위 정벌을 위한 출병을 요청하였다. 이 때 어 유소는 서정 대장(西征大將) 직에 올라, 정벌군 1만 명을 이끌고 만포진(滿浦鎭)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압록강에 얼음이 다 녹아 버렸고, 미처 배가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1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어 유소는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돌려 서울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어 유소의 보고를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조선의 군사가 건주위를 정벌하려는 명나라 군사와 합세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대국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요구를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그리하여, 명나라의 책임 추궁을 두려워한 조정의 대신들은 어 유소를 양근(楊根)으로 귀양보냈다.

그러나, 어 유소를 귀양보낸 것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명나라에 대한 조선 조정의 일시적인 책임 회피의 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이듬해 귀양을 풀었다가, 1482년 야인들이 또 국경 부근에서 약탈 행위를 일삼자, 그를 다시 영안도(永安道) 순찰사로 기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경 지방에 당도한 어 유소는 야인들을 만나 그들을 잘 설득함으로써 북변 지역을 평온케 하였다.

이렇듯, 북변의 야인을 무마하고 내란을 평정하여 평온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했던 어 유소는 1489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정장(貞莊)이다.



언더우드 (1859~1916)

—많은 업적을 남긴
미국 선교사—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우리 나라의 종교, 문화, 언어,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긴 미국의 선교사로써, 한국 이름은 원 두우(元杜尤)라고 한다.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여 1872년 미국으로 이주한 언더우드는 뉴우요오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1884년 7월 우리 나라에 오는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1885년 4월, 그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인천에 상륙하였고, 곧 서울에 들어와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886년 봄, 정동에 있는 그의 집 사랑방에서 시작된 고아원 형식의 언더우드 학당은 예수교 학당(1891년), 민노아 학당(1893년), 경신 학교(1905년) 등으로 학교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배재 학당과 나란히 우리 나라 초기의 현대식 학교가 성장하게 되었다.

1887년에는 우리 나라 벽지를 구석구석 찾아 다니는 전도 여행을 단행하였으며, 그 해 9 월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교회인 새문안 교회를 세웠다.

그는 《영한 사전》《한영 사전》등의 저서를 남겼으며, 성서 번역 위원회 초대 위원장, 대한 기독교 서회 회장, 한국 기독교 교육회 회장 등으로 일하는 한편, 교회 연합 운동을 지도하였다.



연희 전문 학교의 후신인 오늘날의 연세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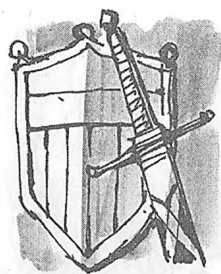
1911년에는 선교 사업과 학교 업무를 위하여 교육 조사국을 창설했는데, 그 해에 병으로 미국에 돌아갔다가, 1916년에 사망하였다.

1890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호레이스 호오턴 언더우드도 아버지 못지 않은 활동을 하였는데, 아들의 한국 이름은 원 한경(元漢慶)이다.

뉴우요르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호레이스 호오턴 언더우드는 경신 학교 교사, 조선 신학 대학 교수와 학장을 지냈고, 1933년 연희 전문 학교 제3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 조선 지부 부회장으로도 많은 활약을 한 그의 저서로는 《영한 사전》 《일상 한국어 자습서》 등이 있으며, 6·25 사변 중인 1951년 부산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어머니, 즉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부인 역시 한국에서 의료 활동을 벌인 의사 호오턴이다.



에드워드 3 세

(1312~1377)

— 백년 전쟁을 시작한 왕 —

에드워드 3 세는 영국 왕으로서,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여 <백년 전쟁>을 일으켰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눈부신 전투를 하였다.

에드워드는 1312년 11월 13일, 에드워드 2 세와 프랑스의 왕녀 이자벨라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나중에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14세 때 에드워드 2 세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왕의 대리가 되었으나, 부왕이 살해되자 15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후 3년 동안은 어머니가 실권을 잡고 있었으며, 1330년, 궁정 혁명이 일어나자 비로서 실권을 잡게 되었다.

왕으로서의 권력을 잡은 에드워드는 프랑스와의 전쟁에 들어갔다. 1337년, 영국은 프랑스에 선전 포고를 하였고, 에드워드는 1340년 1월 26일에 자신이 프랑스의 왕이라고 선언하였다.

전쟁에서 영국군은 계속 승리를 하였고, 1356년의 프와티에 전투에서는 프랑스의 왕 존 2 세를 사로잡았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에드워드는 가아터 훈장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는 평온하지 않았다.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던 페스트 때문에 영국 인구의 20%가 사망하였고, 국내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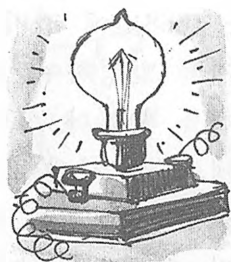


정 상태도 엉망이었다.

에드워드는 프랑스 왕의 많은 몸값과 그 밖의 많은 영토를 얻은 후에 영국으로 돌아왔다. 1369년에 왕비 필리파가 죽자, 에드워드는 엘리스 페리즈를 맞아들였다.

1371년, 프랑스가 스코틀랜드와 동맹을 맺어 영국에 대항하자, 전쟁은 다시 계속되었다. 1376년, 탁월한 무공을 세운 에드워드의 장남 황태자가 죽고, 이듬해 에드워드 3세도 죽고 말았다.

에드워드 3세는 너무 전쟁만 하여 국가 재정을 낭비했다는 비난도 많이 들었지만, 그의 빛나는 정복 때문에 후세의 영국인들은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에 디 슨 (1847~1931)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은 특허를 받은 것만 해도 1천 종이 넘는 미국의 발명가이다. 그는 함석판을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던 새뮤얼 에디슨의 일곱째로 오하이오 주 밀란에서 출생했다.

7세 때, 그의 집안은 미시간 주 포르트휴런으로 이사했다. 에디슨은 그 고장의 국민 학교에 입학했으나, 석 달만에 자퇴를 하고, 대부분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12세 때 열차 안에서 신문과 과자를 파는 판매원이 되었다. 그리고, 열차의 수하물실에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는 틈날 때마다 실험을 하곤 하였다.

1860년, 어느 날 에디슨은 떠나려는 열차에 급히 올라타려고 하자, 그 때 이를 본 차장이 에디슨의 양쪽 귀를 잡고 끌어올려 주는 바람에 고막이 터져,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그 후에는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15세 때에, 역장 아들의 목숨을 구해 준 덕분에 전신 기술을 배우게 되었으며, 1869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각지에서 전신 기사로 근무했다. 그 동안, 보스턴에서 패러데이의 《전기학의 실험적 연구》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 그 책의 설명이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 대단히 흥미를 느끼고, 그 책에 실려 있는 실험을 모두 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에디슨

에디슨은 1868년에 전기식 투표 기록기를 발명하여, 처음으로 특허를 받았다. 뒤이어 다음해에, 주식 시세 표시기 등을 발명했으며, 이 발명으로 생긴 자금으로 뉴저지 주의 뉴우어크에 공장을 짓고, 발명에 전념하게 되었다.

에디슨은 1876년에 실험소를 멘로파아크로 옮겼고, 1887년에는 웨스트오린지로 옮겨 계속 연구에 몰두했다.

그 결과, 1871년에 글자가 인쇄되어 나오는 인쇄 전신기를 발명했고, 다음해에는 이중 전신기를 발명하여 다시 2중·4중 전신기로 차츰 개량해 갔다. 1876년에는 탄소 전화기, 1877년에는 축음기, 1879년에는 백열 전등, 1891년에는 영화 촬영기와 영사기, 1891년부터 1900년까지 자기 선풍법(選鑛法), 1900년부터 1910년까지는 에디슨 축전지 등을 잇달아 발명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한때 사업을 그만두고, 해군 고문 회의의 회장이 되어 군사 과학상의 문제에 몰두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다시 웨스트오린지에 있는 실험소와 공장으로 되돌아가서, 고무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식물의 연구 등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시멘트 공장을 경영하는 등 사업가로서의 수완도 발휘했다. 1931년 10월 18일에, 84세로 세상을 떠났다.



에머슨 (1803~1882)

—인간 존엄을 주창한
사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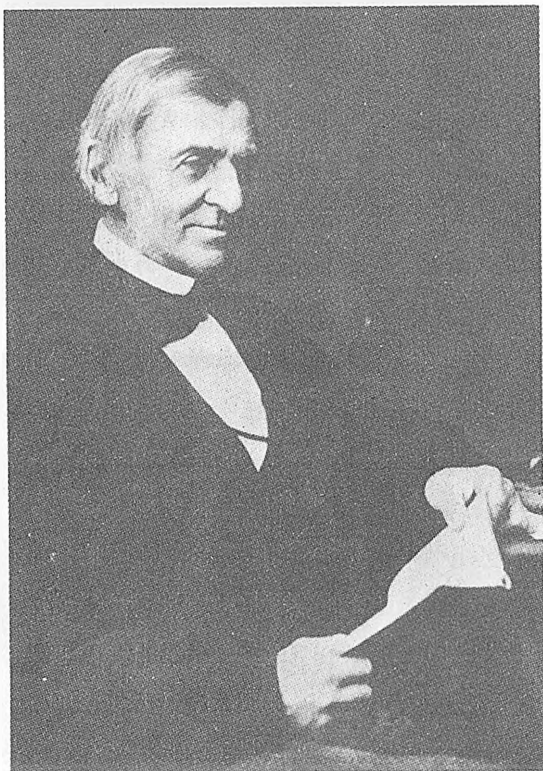
랠프 월도 에머슨은 미국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며 시인이다.

에머슨은 1803년 5월 25일에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윌리엄 에머슨, 어머니는 러드 해스킨스 에머슨으로, 에머슨은 여섯 아들 중 세째아들로 태어났다.

에머슨

그는 1817년에 하아버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교편을 잡는 한편 소설과 시를 습작했고, 신학 서적을 탐독했다.

1825년에 하아버드 대학 신학부에 입학하여 신학을 수학하고 목사가 되었으나, 그는 크리스티교에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그 후 목사가 된 지 3년 반 만에 목사직을 버렸다. 목사직을 그만둔 이듬해 유럽으로 건너가 영국의 문인들과 교유하여 특히 카알라일과 친교를 맺었고, 귀국 후 1834년에 콩코어드에 은퇴하여 사색과 독서를 즐기며 저작 생활을 했다.

에머슨은 사람들로 부터 <콩코어드의 성자>라고 불렸으며, 퓨리터니즘의 부정적 인간관에 혁명을 가져온 긍정적 인간관을 설명하여 인본주의를 부르짖었다.

그 후, 에머슨은 두 차례의 유럽 여행을 제외하고는 콩코어드에 머물렀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문필과 강연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을 폈다.

1836년에 처녀작 《자연론》을 발간하여, 미국의 회고적 유럽 의존의 폐풍을 일변시키고 미국에 르네상스를 가져오는 대사업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 에머슨을 중심 인물로 <초

절(超絶) 클럽>을 조직하여 당시의 물질주의에 반항하고, 교회의 전통에 반기를 들어 개인의 존엄과 범신론적인 신비주의를 주장했다.

이리하여, 콩코어드 마을에서 미국 문학사에 황금 시대를 이룬 이상주의의 봉화가 올랐다.

그들은 기관지 《다이얼》을 발행하고, 또한 차차 조직의 폭을 넓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공명자가 생겼다.

《월든 숲 속의 생활》의 저자이며 에머슨의 제자적인 드로우도 이 동인 잡지에 의해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에머슨은 《자연론》 발표 이후, 모교에서 <미국의 학자>와 <신학부 강연>을 행하여 급진적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의 학자>는 사색하는 사람인 학자를 교육하는 것으로서, 자연 및 과거의 사상과 행동을 들어 학자의 마지막 의무인 자기 신뢰를 주장한 것인데, 미국의 문화적 독립 선



언으로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명한 강연이며,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고전이다.

당시는 산업주의와 서부의 광대한 토지라는 물질적 배경에 따라 민중의 세력이 커 가고 있을 때였는데, 에머슨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개인의 존엄을 자각할 것을 주장하여, 민주주의의 참된 근거를 시사하고 미국이 추구할 이상을 높이 외치는 예언자가 되었다.

에머슨의 일기는 그가 죽은 후 전10권으로 정리될 정도로 방대한 것이다. 이것을 에머슨 자신은 〈저축 은행〉이라 말했고, 이 은행에서 강연과 저술을 위해 자유로이 문장을 인용했다.

1846년에는 시집을 발간했는데, 그에게는 예언자적 시인으로서의 지각이 있어, 강연과 에세이의 내용을 압축한 무수한 시 작품이 있으며, 영국의 17세기의 형이상 시(形而上詩)의 전통을 이은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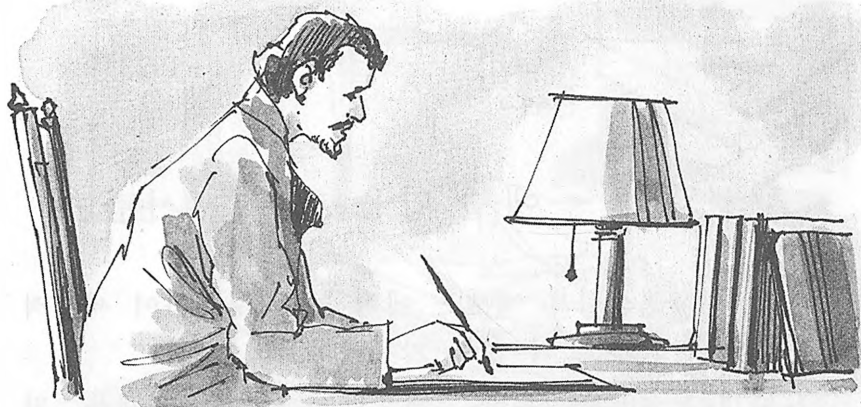
에머슨은 《자연론》에 있어서, 자연은 정신의 상징이라고 하여 상징론을 전개한 시인, 사상가와 상응되고, 그의 걸작은 철학적 상징시에 있다.

에머슨은 1840년대에 동양의 경전(經典)에서 진리의 보편성을 발견하고 경전을 애독한 일도 있으며, 특히 그의 시 《브라트마나》에도 그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직관에 의한 자연(물질)이 신(神)의 상징이라고 깨달은 에머슨의 《자연론》은 정신론이기도 하며, 작은 책이기는 하나 초절주의(超絶主義)의 선언서이기도 했다.

산문시와 같은 격조 높은 문체 속에 만물이 지고자(至高者)에게 귀일하는 범신론적 상징주의가 씌어 있다.

에머슨의 에세이 집은 그의 사상의 성숙기의 가장 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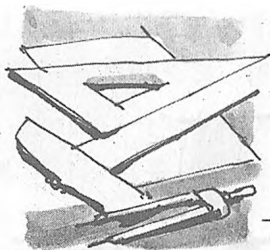


한 에세이를 포함한 것이다. <자기 신뢰>는 신과 인간과의 합일이라는 관점에서 자기 속에 있는 신을 신뢰할 것을 주장하고, <온화함>은 세계의 정신적 조화라는 관점에서 선악고락(善惡苦樂)의 해결을 설파하고, <대령(大靈)>은 에머슨이 힌두 어에서 암시를 받아 신을 이렇게 부른 것인데, 이들 속에 그의 중심 사상이 담겨 있다.

카알라일은 《영웅론》에서 천재를 영웅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에머슨은 천재라는 것은 만인에게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특질이 개인에게 대표적,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플라톤, 몽테뉴, 셰익스피어, 나폴레옹, 피테 등에 대해서 논한 민주적 위인론을 펴고 있다.

이 세상은 살아 있는 신의 것으로 만인은 어느 곳에서나 신의(神意)를 읽을 수 있는 빛의 혜택을 받으며, 그 내심의 빛에 순종하는 데에서만 참된 행복과 구원이 있다는 종교의 종파,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동류를 하나로 묶는 퀘이커리즘에 통하는 신념에 그는 투철했다.

에머슨은 이와 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사색과 독서와 저작 생활을 하다가, 1882년에 79세로 세상을 떠났다.



에펠 (1832~1923)

—에펠 탑을 설계한 사람—

알렉상드르 귀스타브 에펠은 에펠 탑을 설계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프랑스의 건축 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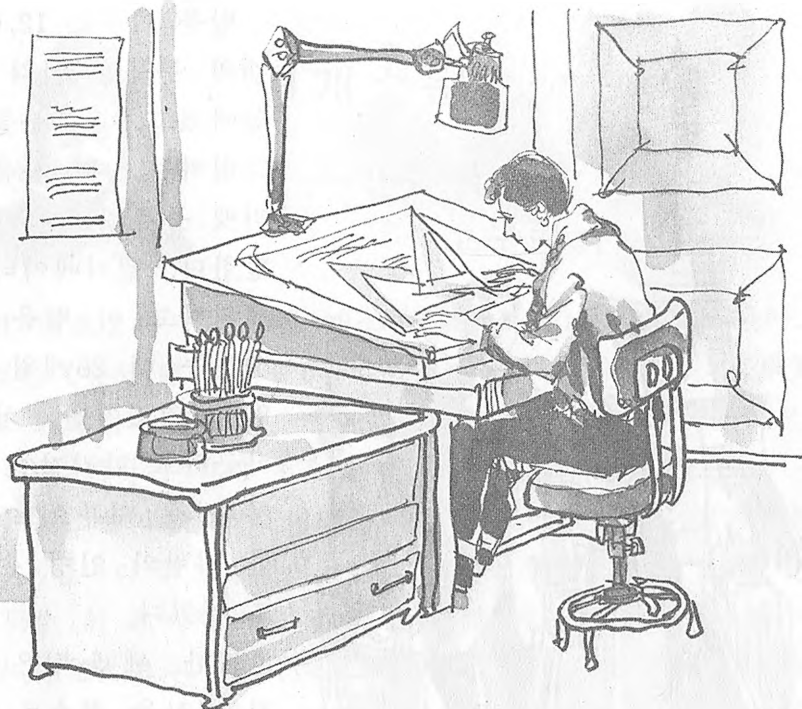
1832년 12월 15일에 프랑스 디종에서 태어난 에펠은, 파리의 중앙 공예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858년, 그는 보르도 지방의 가론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세웠는데, 교각(橋脚) 말뚝을 박는 데 압축 공기를 사용한 공사였다. *

1867년, 에펠은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여 다리, 고가교(高



에펠(왼쪽)과 그가 만든 파리의 에펠 탑(아래)





架橋 : 깊은 골짜기 위에 만든 구름다리), 항만 시설 등의 대형 공사를 맡아서 하였다. 그가 설계한 다리로는 포르투갈의 도우로 강을 횡단하는 아아치 형의 다리, 프랑스의 가라비 고가교 등이 있다.

1884년에는 자유의 여신상 철제 부분을 설계했으며, 1885년에는 니스 천문대의 도움 식 천장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1886년부터 1889년에 걸쳐 유명한 에펠 탑이 세워졌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에펠 탑은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이며, 철골(鐵骨) 건축의 걸작이다. 1959년에는 라디오 안테나가 그 위에 세워짐으로써 탑의 높이는 약 300미터가 되었으며, 항공 등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종합 안테나로도 사용되고 있다.



탑을 이루는 12,000개의 부분을 미리 만들어졌고, 이 부분들을 조립하는 데 사용된 리벳 못은 250만 개에 달한다.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이 탑을 완성하는 데 26개월 15일이 걸렸지만, 차근차근하고 합리적인 공사 진행 덕분에 단 한 사람의 인명 손실도 없었다.

또한, 에펠 탑은 공기 저항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특수 설계되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는 정도는 22센티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7,000톤 이상의 철이 들어간 이 거대한 탑은 2.25제곱미터의 받침돌 4개가 받치고 있다.

이 탑은 전체적으로 보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상에서 57미터, 115미터, 276미터 되는 곳에 각각 난간이 마련되어 있다.

에펠은 만년에 기체 역학을 연구하여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1923년 12월 27일 파리에서 사망하였다.



淵 蓋 蘇 文 연개소문 (? ~665)

— 만주 벌판을 지킨

고구려의 명장 —

연 개소문은 일명 천 개소문(泉蓋蘇文)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당서(唐書)》나 《삼국사기》 등에 그의 성이 천(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나라 고조의 이름이 연(淵)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천으로 바꾼 것이라고 전한다.

연 개소문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기록에 전하고 있지 않으나, 당나라에 망명하여 낙랑 땅에서 죽은 그의 장남 남생(男生)의 묘에서 발견된 묘지(墓誌)에 의하면, 아버지는 동부(東部), 또는 서부(西部)의 대인(大人)이던 태조(太祚)이며, 조부나 아버지가 모두 막리지를 지낸 권문 세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연 개소문은 열 다섯 살 때,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대인의 직책을 아버지에게서 계승받아 동부 대인이 되었다.

동부 대인이 된 연 개소문은 642년(영류왕 25)에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주의 부여성에서 남쪽 발해 연안에 이르는 1천 리에 달하는 장성을 축조하고는, 이 해에 자신을 제거하려는 내인들의 움직임을 알고 그들을 불러, 연회를 베푼 자리에서 180여 명의 대인들을 죽이고, 아울러 영류왕을 시해한 다음, 영류왕의 조카(보장왕)를 왕위에 앉히고 스스로 대막리지가 되어 정권을 잡았다.

정권을 잡은 연 개소문은 백제에게 빼앗긴 대야성 지방을 수복하기 위하여 구원병을 요청하러 온 김 춘추를 감금



하고, 전에 신라에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의 땅을 먼저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백제와 손잡아 신라의 변방에 있는 성들을 쳐서 빼앗고, 신라가 당나라로 건너가는 유일한 길목인 당항성(지금의 남양만)을 빼앗아 교통로를 차단했다.

644년(보장왕 3), 당나라의 태종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어 신라와 화해를 권고했으나, 연 개소문은 당 태종의 요구를 물리치고 당나라 사신을 감금하는 등 강경책을 썼다.

이에 격노한 당 태종은 연 개소문이 임금(영류왕)을 시해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죄를 다스리겠다는 구실로 645년에 17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쳐들어왔다. 당나라의 17만 대군은 고구려의 개모성, 백암성, 요동성 등을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고구려군에게

막대한 피해만 입었다.



그 중에서도 안시성의 60여 일 간의 공방전은 실로 역사상 유명한 혈전이었다. 안시성은 그 주변이 험준한 천연의 요새로서 당나라 군사 10여 만이 집결하여 이 성을 공격했으나, 연 개소문이 지휘하는 고구려 군사들은 참으로 용맹스러웠다. 여기서 밝혀 둘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양 만춘(楊萬春)은 안시성 성주로서, 매일 6, 7회의 접전을 치르면서 안시성을 잘 지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정사(正史)에는 연 개소문과 더불어 빛나는 공을 남긴 양 만춘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하지 않고 야사(野史)에만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9월에 접어들면서 찬 바람이 불고 군량미의 수송이 어려워지자, 당 태종은 60여일 간의 싸움을 끝내고 기진 맥진하

여 전군을 철수시켰다. 이 안시성 싸움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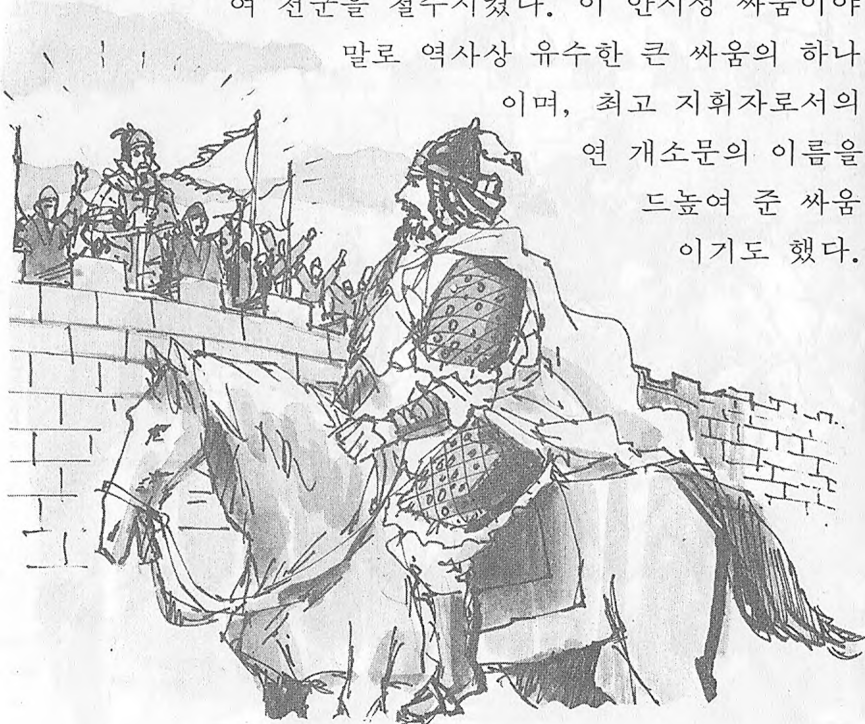
말로 역사상 유수한 큰 싸움의 하나

이며, 최고 지휘자로서의

연 개소문의 이름을

드높여 준 싸움

이기도 했다.



그 후, 당나라 군사들은 647년, 653년, 655년, 658년의 네 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그 때마다 고구려 군사들은 잘싸워 당나라 군사를 물리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켰다.

이와 같이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이외에도, 연 개소문은 외교에도 훌륭한 업적을 보였으며, 643년에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교(道敎)의 도사(道士) 8명과 《도덕경》을 들여오는 등 문화면에 치적을 남겼다.



이와 같이 연 개소문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면에, 왕을 시해하고, 지나치도록 공포적인 독재 정치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나, 난국을 타개해 나간 그의 강력한 지도력은 역시 그가 유능한 인물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만주 벌판에 드눴던 그의 기상도 665년(보장왕 24) 조용히 눈을 감았으며, 그가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남생과 남건의 싸움으로 결국 고구려는 705년 만에 그 막을 내리는 원인이 된다.



廉 想 涉
염 상 섭 (1897~1963)

—사실주의를

확립한 소설가—

염 상섭은 자연주의에서 출발하여 사실주의 문학의 확립에 이바지한 소설가로서,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서 파주 염 씨 집안의 6 남 2 녀 중 세째로 태어났으며, 본명은 상섭(尙燮)이고, 호는 횡보(橫步)이다.

1905년 보성 소학교에 입학한 그는 졸업을 얼마 앞둔 1911년에 학교를 중퇴하고,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 토오쿄오에 있는 아사부 중학(麻布中學)에 편입하여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다시 토오쿄오 부립 중학으로 옮기고, 1917

염 상섭



년 졸업과 동시에 케이오오(慶應) 대학 문과에 입학하였다.

케이오오 대학 재학 시절에는 3·1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였으며, 출옥하자 곧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하여 동아 일보사에 입사, 정치부 기자로 활약하였다.

1920년 7월, 문예 동인지 《폐허》(19세기 후반

서구 문학의 상징주의와 퇴폐적 경향을 소개했음)가 창간되매 그는 김억(金億), 남궁벽(南宮璧), 오상순(吳相淳) 등과 함께 동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신문학 운동에 앞장섰으며, 이듬해 우리 나라 신문학상에 큰 공적을 남긴 《개벽(開闢)》지에 단편 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여 문단에 등장하였다.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3·1 운동을 전후하여 시대적으로 가장 절망적이고 침울하던 무렵의 어두운 우리의 현실을 정확

하게 꿰뚫어 관찰한 작품으로, 당시 지식인들의 괴로움과 번뇌가 뚜렷이 반영되어 있으며, 의식이나 심리, 관념의 세계를 감각적 표현으로 바꾸어 형상화하는 수법을 구사하여 생기와 멋이 깃든 문체를 보여 주고 있으며, 1인칭으로 씌어졌고, 우리 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다.

1922년, 종합 주간지 《동명(東明)》에 입사하여 기자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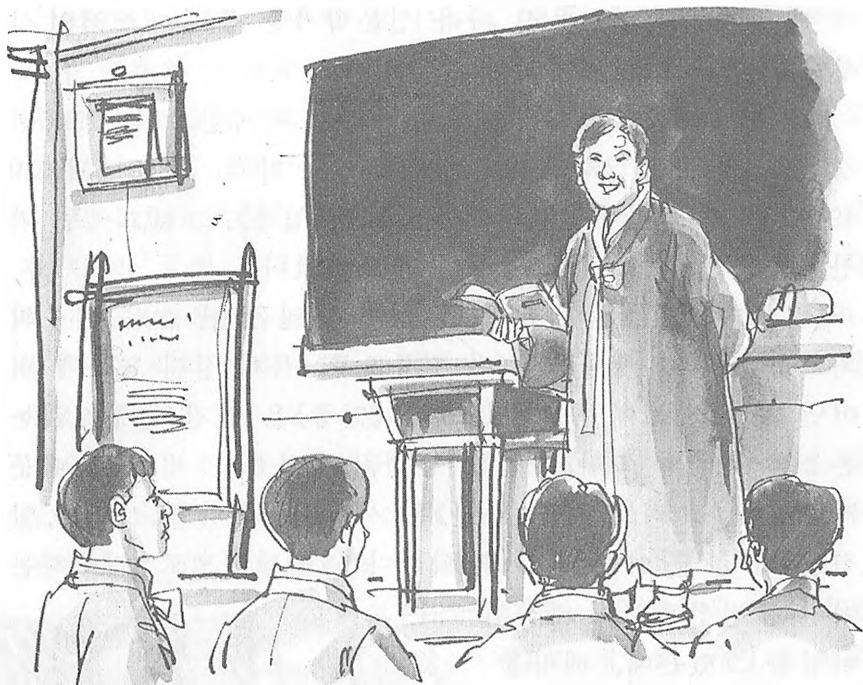


활을 하던 그는 그 후 소설가 현 진건과 함께 《시대 일보》와 《매일 신보》에 기자로 있으면서 평론을 쓰다가, 점차 창작에만 전념하여 《제야(除夜)》 《죽음과 그림자》 《해바라기》 《만세 전(萬歲前)》 등을 발표하였다.

《만세 전》은 중편 소설로서, 1923년에 잡지 《신생활》에 《묘지》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것을 1924년에 제목을 고친 것이다.

3·1 독립 운동을 일으키기 이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혹독한 탄압 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절망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냉철히 비판한 작품으로서, 낡은 사상과 풍습에 젖어 있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아버지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는 형,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며 감상에 젖어들기를 잘 하는 주인공 <나>가 등장한다.





그 후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윤전기》 《광분》 《무화과》 《불연속선》 등 여러 작품을 발표하며 계속 서울에서 지내던 그는, 한때 평안 북도로 가서 정주(定州)의 오산 학교(五山學校)에서 교편을 잡다가, 만주로 건너가 1936년 《만선일보(滿鮮日報)》에서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후 약 10년간은 만주에서 생활을 하였다.

이 무렵에 그는 장편 소설 《삼대(三代)》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1930년대 서울의 이름난 부자인 조씨(趙氏) 일가를 무대로 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 3대가 일제의 식민지 아래에서 어떤 의식을 지니고 어떤 이유로 몰락하며, 당시 젊은이들의 번뇌가 어떠했는가를 사실적인 수법으로 파헤쳐 인간의 의식 상태를 아름답고 교묘하게 그

려 낸 작품으로서, 우리 나라 신문학사를 통해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소설이다.

해방이 되자, 만주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그는 1946년 경향신문사에 입사하여 편집국장이 되고, 1948년과 1949년 두 해 동안에 《일대의 유업》과 《임종》, 그리고 《두 파산》 등의 단편 소설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일대의 유업》은 서른 셋에 남편을 잃은 한 젊은 과부의 외로운 심경과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 특히 심리 묘사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임종》은 인간의 부질없는 본능적 욕구와 속되고 천한 성질을 사실적인 필치로 다룬 작품이다. 그리고, 《두 파산》은 사실주의풍의 소설로서,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려다가 물질적으로 파산하는 여인과 정신적으로 파산해 가는

여인을 그렸는데, 해방을 맞은 뒤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나타내 준 대표적인 단편이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자, 해군 소령으로 참전하여 조국 수호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 그는 1951년에 단편 《탐내는 하꼬방》 《비스킷과 수류탄》을 발표하였고, 1953년 《짓지 않는 개》, 1954년 《취우》를 발표하였다.

《짓지 않는 개》는 단편 소설로서,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한·만 국경 지대의 어지럽고 불안한 실정을 잘 표현한 작품이며, 《취우》는 6·25사변 당시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공산주의자의 잔학성과 도덕을 넘어서 자연 그대로의 인간애를 그린 작품으로서 장편 소설이다.

1953년 그는 서울시에서 수여하는 문화상을 받았으며, 이듬해 예술원이 개원되자 초대 회원이 되어 종신 회원에 추대되었고, 1955년 서라벌 예술 대학 학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1953년에 발표했던 《짓지 않는 개》로 제3회 아시아 자유 문학상을 받았으며, 1957년에는 예술원 공로상, 1962년에는 3·1 문화상 예술 부문 본상을 각각 수상하였고, 또 그 해 8월에는 대한 민국 문화 훈장을 받았다.

한국 신문학 운동에 있어서의 그의 공적은 대체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3·1 운동 이후에 전개된 신문학 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약하였다는 점이며, 둘째, 1920년대에 있어서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평론 활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세째, 우리





榮 留 王 (? ~642) 영 류 왕

— 고구려 제27대 임금 —

영류왕은 고구려 제27대 임금으로서, 이름은 건무(建武), 또는 건성(建成)이라 했으며, 26대 임금인 영양왕의 이복 동생이다.

영양왕이 고구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중국에는 수(隋)나라가 있었는데, 수나라의 황제 문제(文帝)가 고구려를 정벌해서 위세를 떨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





나라 문학사에 최초로 자연주의 문학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한편 그의 문학적 특성으로는, 자연주의에서 출발하여 사실주의적 경향을 띤 후 끝까지 사실주의를 고수했다는 점과, 객관적인 표현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고집이 세기로 유명해서 호마저 횡보(모로 걷는다는 뜻임)였던 그는, 매사에 자기의 의견만 내세우기를 잘 하는 성격인데다 내성적이어서, 오랫동안 문단 생활을 했으면서도 특별히 가까운 친구가 없었다.

1963년, 지병이던 고혈압과 신경통으로 사망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후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작품은 28편의 장편과 148편의 단편, 그리고 100여 편의 평론과, 잡문 246편이 있다.

그 후 문제가 죽고 그 아들 양제(楊帝)가 즉위하였는데, 고구려는 여전히 자주성을 내세워 수나라를 섬기려 하지 않으므로, 양제는 크게 노하여 수륙(水陸)으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에는 명장 을지 문덕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도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수나라는 크게 패하고 돌아갔다.

분을 참지 못하여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공격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다가, 결국은 수나라 자신이 망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618년, 당나라가 일어서게 되었는데, 고구려에서는 바로 그 해에 영류왕이 즉위하였다.



영류왕은 왕위에 오르자, 우선 첫번째 사업으로 과거 수와의 싸움에서 포로로 잡혀 간 고구려 백성을 구해 오기 위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교섭을 하였다.

이에 당 고조(高祖)도 꽤히 응낙함으로써 양국은 포로를 교환하게 되었으며, 이후 얼마 동안 두 나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624년, 영류왕은 당나라에 조공하고 사신을 보내어 역서(曆書)를 구해 오도록 했는데, 당 고조는 영류왕을 상주국 요동군공 고구려왕(上柱國遼東郡公高句麗王)에 봉하는 한편, 도사(道士)에게 명하여 천존상(天尊像) 및 도법(道法)을 가지고 가노자(老子)의 도교(道教)를 강론케 하여, 임금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과 백성들이 청강하였다.

영류왕이 이렇듯 문화를 사랑하여 당나라와 빈번히 문화 교류를 하느라 국방에 다소 소홀한 기미를 보이자, 신라는 629년에 김 유신 장군을 보내어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하였다.

이에 영류왕은 국토를 지키기 위하여 631년부터 연 개소문을 감독으로 하여 동북 부여성(扶餘城)에서 동남해에 이르는 천리 장성을 쌓도록 하는 한편, 638년에는 신라 북쪽





의 칠중성(七重城)을 침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640년, 영류왕은 다시 문화면에 관심을 기울여, 왕자를 비롯하여 귀족들의 자제를 당나라에 보내어 학문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에도 천리 장성을 쌓는 일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축성 감독인 연 개소문이 지나치게 횡포를 부리어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영류왕은, 부하 장수들을 시켜 그를 처형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러나, 연 개소문은 이 소식을 먼저 알고 군사를 일으켜, 영류왕 이하 180여 명의 대인들을 살해하고 말았다.

이로써 문화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꼈던 영류왕은 왕위에 오른 지 24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칼 라 판 / 소년소녀

위 인 전 기 32

나이팅게일



개정신판 인쇄	1982년 9월 20일
개정중판 발행	1983년 3월 30일

글쓴이	이	영	재
발행인	김	락	준
발행처	금	성	출판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42의 63
등록 1965. 10. 19 제 2 — 63호
전화(713)9651 ~ 8 우편번호 121

제 판	삼화인쇄 주식회사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일칼라
인 쇄	삼화인쇄 주식회사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광명인쇄 공사
제 책	삼화인쇄 주식회사 제책부 당산실업 주식회사
제 지	계성제지 주식회사

정가 3,000 원

(본사는 출판윤리 강령을 준수함)

1	건 유 신	23이	순 신	45주	시 경
2	그 리 스 도	24나	아 윈	46난	센
3	원 표 대 사	25화	준	47건	구
4	클 물 부 스	26리	빙 스 턴	48췌	원
5	고 신 지	27박	지 윈	49안	창 호
6	칸 텔 레 이	28면	레	50키	리 부 인
7	장 보 고	29건	홍 도	51안	중 근
8	누 우 들	30회	트 먼	52라	이 트 형 제
9	최 치 윈	31경	약 용	53한	용 공
10	페 스 탐 포 켜	32나	이 텅 게 일	54간	디
11	왕 건	33건	정 회	55신	채 호
12	모 짜 르 트	34파	스 톱 르	56시	바 이 켜
13	문 익 점	35건	정 호	57중	난 파
14	나 롭 레 응	36파	브 르	58아	인 시 타 인
15	제 중 대 왕	37홍	선 대 원 군	59방	정 화
16	베 에 드 벤	38롤	스 토 이	60헬	렌 켄 러
17	장 영 찬	39건	대 건	61유	관 순
18	슈 베 르 트	40노	벨	62마	리 안 앤 머 스
19	이 화	41건	응 관	63공	동 주
20	안 데 르 센	42에	디 스	64케	네 디
21	신 사 안 당	43전	물 준		
22	림 권	44고	호		





조선의 명필
33 김 정 희



세균학의 창시자
34 파 스티르



대동여지도 를 만든
35 김 정 호



곤충 학자
36 파 브 르



조선 말기의 풍운아
41 김 옥 균



발명왕
42 에 디 슨



동학 혁명의 지도자
43 전 봉 준



정열의 화가
44 고 호



항일 독립 운동가
49 안 창 호



뛰어난 물리학자
50 퀴리 부인



항일 순국 의사
51 안 중 근



비행기의 발명자
52 라이트 형제



민족 음악가
57 홍 난 파



천재 물리학자
58 아인슈타인



영원한 어린이의 벗
59 방 정 환



여류 교육가
60 헬렌 켈러



조선 말기의 거목
37 홍선 대원군



러시아의 문호
38 라스크로이



한국 최초의 신부
39 김 대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40 노 벨



국어학의 선구자
45 주 시 경



북극 탐험가
46 남 센



한일 독립의 혁명가
47 김 구



중국 독립의 아버지
48 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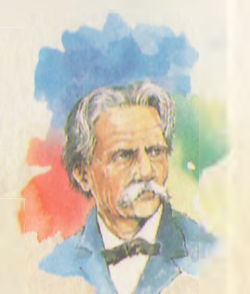
한일 민족 시인
53 한 용 운



인디아 독립의 아버지
54 간 디



민족의 사학자
55 신 채 호



민위의 성자
56 시바이찌



항일 순국 소녀
61 유 관 순



흑인 가수
62 마리안 앤더슨



저항 문학의 시인
63 윤 동 주



뉴우 프런티어의 기수
64 케 네 디

소년소녀 위인전기 32 나이팅게일

특집 부록 : 학습 역사 인명 사전



금성출판사